

제목 : **정부, 곧 고문방지협약 가입**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유엔 고문방지협약 가입의사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통보하고 오는 임시국회에서 이 협약을 비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주외무장관은 8일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50주년 기념 한국위원회>창리총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우리는 작년부터 유엔인권위 위원국으로 활동하고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한장관이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고문방지협약 가입의사를 밝힌 이래 협약 가입방침을 거듭 천명해왔으나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지금까지 지연돼왔다.

이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 의무가 규정돼 있는데 \*가입후 1년 이내에 이행보고서및 그 이후 4년마다 추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범죄인 인도와 사법공조등 고문행위자 처벌을 위한 국제협력등을 규정하고 있다.

발행일 : **94년4월8일**

제목 : **정부, 22일 인권대책회의.. 인권 개선방안 논의**

정부는 오는 22일 인권관계 대책회의를 열어 현재의 국내 인권상황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법령 개정을 검토하는등 인권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의에서 대외적으로 약속한 고문방지협약에 조기가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한다.

정부가 인권관계 대책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은 새 정부 출범후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최근 미정부 관리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문제를 거론한데 이어 국제사면위원회(AI)가 발간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에도 왜곡된 내용이 담겨있는등 한국의 인권상황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외부에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22일 열리는 인권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최근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 결과와 AI의 한국관련 특별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 우리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인권관계 법령이 현 시점에 적절한지도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I는 최근 한국인권에 대한 특별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국의 인권이 몇가지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준 기자>

발행일 : **94년3월15일**

제목 : **정부, 인권백서 발간 국제사면위원회에 보낼 방침**

정부는 국제사면위원회(AI)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특별보고서 가운데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아 한국의 인권개선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백서를 발간, AI에 보낼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10일 "특별보고서가 새정부 출범이후에도 한국의 인권이 몇가지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차원에서 인권백서를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한국에 정치범은 있을 수 없으며, 문민정부 출범이후 고문은 물론 가혹행위도 사라졌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의준기자>

발행일 : 94년3월10일

제목 : 정부, 국제사면위 인권보고서에 유감 표명

정부는 10일 국제사면위원회(AI)가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를 발간, 새정부의 인권상황이 몇가지 분야에서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이같은 입장을 주영대사관을 통해 국제사면위원회 본부에 전달하고 민주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런 보고서가 발간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함명철 외무부국제기구국장이 밝혔다.

함국장은 "이번 국제사면위 보고서는 새정부 출범이후 민주화 정책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과거의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특히 국제사면위가 당사자및 가족들의 주장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제사면위가 지적한 사례는 간첩죄등 실정법을 위반한 사건일 뿐 현재 정치범은 있을 수 없으며 문민정부 출범후 고문은 물론 다른 가혹행위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인권문제가 단순히 한 국가의 국내문제가 아니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할 기본목표라는 인식아래 범세계적 인권개선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발행일 : 94년3월10일

제목 : 정부, 고문방지협약 가입 "미적 미적"

정부가 대외적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해 놓고도 국내 절차를 이유로 미루고 있어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은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문을 앓겠다는 의지만 필요한 데도 정부 일부 부처의 소극



적인 자세로 가입이 늦추어지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작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 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올해안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는 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회의등에서 고문방지협약에 조만간 가입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관계부처 협의도 끝내지 못한 채 이 협약의 가입을 미루고 있다.

이는 안기부와 경찰청은 가입에 동의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의견조율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청은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의 제소나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사부국이 회원국의 고문 혐의가 있으면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무부 당국자는 "현재 국내법에서는 고문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관계당국의 의지만 분명하면 별 문제가 될게 없는데 가입을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의준 기자>

발행일 : 94년3월8일

제목 : 고문치사 박종철군 영가 7주기 맞아 양산으로 옮겨

지난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로 작용, 민주화의 장을 열게 했던 고박종철군(당시 21세, 서울대 언어3)의 영가(영혼)가 7주기를 맞아 경남 양산의 성전암으로 옮겨 영면한다.

고 박종철군의 부친 박정기씨(65) 등 유족과 민가협(민가협) 등 부산지역 재야단체 회원들은 13일 그동안 박군의 영가를 봉안했던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240의55 사리암에서 7주기 추모법회를 갖고 박군의 위패 등 영가를 새 보금자리인 양산군 하북면 백록리 성전암으로 옮겨갔다.

박씨 등 유족들은 지난 87년 1월 14일 박군이 숨진 이후 박군의 재를 올려온 당시 사리암 주지였던 도승스님이 양산에 새로 절을 짓고 도량을 옮김에 따라 최근 가족회의 끝에 영가 천위를 결정했다는 것.

유족들은 당초 사리암이 박군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다닌 절인데 다 박군도 어린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자주 드나드는 등 인연이 깊어 영가 천위 문제를 놓고 무척고심했으나 박군이 숨진 당시가 5공 말기의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도승스님이 '2.7추도회' '3.3 49재' 등을 직접 집전하는 등 정성을 쏟아온 점을 고려, 정든 사리암을 떠나기로 했다는 것이다.



발행일 : 94년1월13일

제목 : 민주당, 신정부 출범이후 인권침해사례 공개

민주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웅순경등 신정부출범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강수림인권위원장은 피해 당사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새 정부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 침해사례로 \*김기웅순경 살인누명 사건 \*박경자주부의 사기 누명사건 \*외대 배병성씨 치사혐의사건 \*인천 부평여고 오석균교사 편파수사 구속사건 \*인천 김동철씨에 대한 만취검사 폭행사건등의 내용을 공개했다.

강위원장은 "이는 수사기관들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직권남용과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진실을 은폐하며 인권유린을 자행했던 폐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김영삼정부의 사정 개혁과 인권관련 공무원들의 기강 확립이 얼마나 해이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행일 : 94년1월13일

제목 : <주사위> 고문경관 이근안씨 출몰 소동.. 허위제보로 결론

김근태씨 고문사건으로 수배중인 고문경관 이근안씨(56)가 5일오전 서울지역에 나타났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는등 한때 소동.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구로경찰서는 경기 광명경찰서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2동 원풍아파트 부근에 이씨가 나타났다'는 익명의 시민제보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관할 개봉2파출소 직원들을 출동시켜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을 하는등 사실확인 및 이씨 검거에 나섰으나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하고 결국 허위제보로 결론짓고 철수.

현장에 출동했던 한 경찰은 "특진과 현상금이 걸린 이씨가 나타났다'는 연락을 받고 긴장감을 갖고 출동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돼 아쉽다"며 허탈한 표정.

발행일 : 94년1월5일



<동아일보>

제 목 : '인권천국' 영국에 외국인탄압 보고서 폭로돼

'만인에 대한 인권보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영국에서 매년 1만명의 외국인이 재판없이 수감되고 있다는 한 보고서가 남의 물의를 빚고 있다.

영국의 이민자 복지대책협회는 지난 3일 '영국의 잊혀진 죄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영국 내무부가 해마다 영국체류를 원하는 약 1만명의 외국인들을 이민법위반혐의로 최장 1년6개월씩을 수감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들 수감자들이 언제 어떻게 풀려날지, 풀려나면 어디로 가게 되는지 등에 대한 단한마디의 설명도 듣지 못한채 장기간 수용소생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용소환경이 열악, 각종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조사보고서를 펴낸 마크 애쉬포드는 대부분이 흑인인 이들중에는 아프리카의 가나등지에서 군부독재자의 탄압 고문에 못이겨 영국에 망명을 원하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당국이 이들에게 불공정하고 사려깊지 못한 무차별 투옥을 자행함으로써 이문제는 '영국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런 일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영국사회에 아무런 해악을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난민입국을 규제하기 위한 이민법을 천편일률적으로 적용,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감옥생활'을 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클로드 모래스 이민자복지대책협회회장도 이 보고서를 인용, 이들이 한치앞의 장래도 예측할 수 없는 '초조하고 불안한 칼날위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지난 87년 이래 정치적 망명을 원하던 4명의 '불법이민자'들이 영국내에서 이같은 고통에 못이겨 자살했다고 전했다.

이 보고서는 영정부당국의 불공정 무차별 이민규제는 다른 유럽공동체(EC)국가들로부터 인권침해,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영국정부당국의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이에대해 영내무부는 일례로 지난 91년 영국에 망명을 요청한 외국인은 4만5천명으로 이중단지 4천5백명이 구속됐고 이중 85%가 2주내에 석방되었다며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 런던 = 연 국 회 특파원 >

발 행 일 : 93/06/09

제 목 : [속보] 안보리, 유고전범재판소설치 만장일치 결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국제유고전범재판소설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자행된 살인 강간 고문 인종참소 등 잔혹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이 국제법정은 모두 1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된다.

국제사회가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재판소를 설치하는 2차대전 종전직후 독일과 일본 등 추축국들의 전범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뉘른베르크와 동경에 각각 전범재판소를 설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관의 선임, 기소준비 및 기타 사전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9월경 활동에 들어갈 유고전범재판소는 단체나 정부보다는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른 개인들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징역형은 선고할 수 있으나 극형인 사형은 배제되고 있다.

안보리는 그러나 유엔이 앞서 선포한 보스니아내 안전지대강화와 현지 세르비아계에 대한 무기 연료공급을 막기 위한 감시단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 채택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발행일 : 93/05/27

제 목 : **대형사고 수사 전용...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검 11층 복도 끝의 문을 열면 다시 복도 양쪽으로 5개씩 모두 10개의 방이 있다.

서울지검 특별조사실.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3평 크기의 이 방에는 1인용 침대와 화장실, 방한가운데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놓여 있다.

보통 '특조실'로 줄여 부르는 이곳에 들어가면 더이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가 통하지 않는 두려움의 장소다.

그렇다고 그 두려움이 '밀실의 고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특조실의 화장실에는 물고문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아예 욕조가 없다.

또 10개의 조사실 중 5개의 방에 모니터용 카메라를 설치, 수사상황을 철저히 감시토록 해 강압수사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나 유명인사들이 관련된 대형사건에서는 무엇보다 수사보안이 중요하다며 이곳을 이중의 문으로 차단해 놓고 있다.

이번 슬롯머신사건의 중요인물들에 대한 조사 역시 이곳에서 이뤄졌다.

정덕진씨는 물론 천기호치안감 엄삼탁 전병무청장 박철언의원 등이 이곳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속됐으며 정덕일씨와 홍모여인도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난 89년 이른바 공안정국 때는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가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 역시 이곳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 특조실은 지난 89년 서울지검 청사 신축과 함께 마련됐다.

서울 서소문에 청사가 있었을 때는 보안 유지가 가능한 조사실이 없어 삼청동 주한월남대사관 자리의 검찰안가나 호텔 등을 이용했으나 예산이 많이 들고 외부조사에 따른 불편도 많아 청사 신축때 특조실을 마련했다.

25일 오전 정덕일씨가 대검 중수부로 소환됨에 따라 이곳 특조실은 텅비어 있다. 그러나 이번 주말 검찰 내부인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된 뒤 정치권 비호세력 등에 대한 전면수사가 시작되면 이곳은 다시 24시간내내 불이 켜져 있을 것이다.

< 김 정 훈 >

발행일 : 93/05/26

제 목 : **안보리, 구유고사 관련 전범재판소 설치승인키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이나 26일께 구유고지역에서 자행된 살인 과 강간, 고문등 기타 잔혹행위등을 저지른 책임자들을 처벌할 국제전



범재판소 설치를 승인할 계획이다.

국제사회가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해 국제재판소를 설치하기는 2차 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등 주축국들의 전범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해 뉘른베르크와 도쿄에 각각 전범재판소를 설치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발행일 : 93/05/26

제 목 : [제주] 간첩혐의 60대 석방운동 벌여

[제주=임재영] 천주교 제주교구사제단은 간첩혐의로 광주교도소에서 수감중인 무기수 이장형씨(61.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리)의 석방을 위해 2년여 동안 구명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사제단 소속 신부 22명은 이씨의 간첩혐의가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의해 조작돼 9년째 무고한 옥살이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학계 종교계 법조계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이장형씨석방모임을 이달말 결성, 가두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발행일 : 93/05/25

제 목 : 재야 인권 10단체, 6공 인권탄압 조사 처벌 국민운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등 10여개 인권단체는 3일 의문사 고문 등 6공당시 인권문제와 관련된 청문회개최와 책임자처벌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요구하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인권위 등 전국13개지부에 '6공인권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들의 고발을 접수하는 한편 국회와 각 정당 사회단체에 이같은 요구를 담은 서신을 전달키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철규 이래창군 등의 의문사사건, 윤석양이병이 밝힌 보안사주도 군복화사업 안기부의 '조통그룹' 조작 및 고문사건 등 6공당시 밝혀지지 않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청문회개최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일 : 93/05/04

제 목 : 고문방지 유엔협약 가입추진... 9월 국회동의안 제출

정부는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한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할 방침인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개인이 유엔인권위에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부수선언에도 일괄 가입할 방침이며 이를위해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고문방지협약은 고문등 일체의 가혹행위를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입국가운데 고문행위 혐의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조사관을 파견, 조사토록하고 있다.

발행일 : 93/05/03



제 목 : **앰네스티, "중국정부 고문 복인" 성명**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적 인권옹호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국제사면위원회)는 16일 중국정부가 중국내 교도소와 수용소에서 광범하게 자행되고 있는 고문을 보고도 못본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앰네스티는 북경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중국에서 "고문이 광범하고 조직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고문행위가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정부는 고문사태를 줄이는데 필요한 근본적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발 행 일 : 93/04/17

제 목 :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징역 8월 선고...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직무유기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에게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소견을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과 관련, 기소됐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강피고인에게는 황박사에게 이같이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발 행 일 : 93/04/02

제 목 : **북한 "이인모씨 위독상태"**

북한은 지난 19일 송환된 이인모씨(77)가 남한당국의 고문으로 인해 건강이 극도로 나쁜 상태라고 31일 주장했다.

동경에서 수신된 북한관영 중앙통신은 이날 병원관리의 말을 인용, "전반적으로 보아 이씨는 고문으로 온전한 기관이 전혀없는 불구자이며 건강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씨가 여러해에 걸친 굶주림과 운동금지로 40kg에 불과하며 근육이 모두 없어지고 전반적 영양상태가 최악이며 치아도 고문으로 거의 모두 부러지거나 부서져 버리고 뿌리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발 행 일 : 93/04/01

제 목 : **박종철군 고문치사관련, 경관 3명 집유 판결... 서울고법**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26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전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피고인(66)등 3명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 대공수사2단 5과장 정정방(54), 전 대공수사 2단5과장 2계장 박원택(52)피고인등 2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원심대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군을 고문치사케 한 조한경경위 등이 검찰



조사에서 '박치원피고인등이 범인을 축소. 은폐. 도피시켰다'고 진술한 부분이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판단되는 만큼 박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따라서 조경위 등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진술을 번복했다라도 검찰조사 당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박피고인 등은 지난 87년 1월 당시 박군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관 5명에 의해 물고문을 당해 숨진 사실을 알면서도 고문에 가담한 경관을 2명으로 축소.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발행일 : 93/02/26

제목 : 박종철군 고문사건 피고인들 징역 2년 구형

서울고검 안대찬검사는 8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치원(66. 대공수사 2단 5과장) 유정방(54. 대공수사 2단 5과 2대장) 박원택(52. 피고인등 3명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 원심 구형량대로 징역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발행일 : 93/02/08

제목 : 북한, "권두영씨 고문에 의해 타살" 주장

북한은 17일 전민중당 고문 권두영씨의 자살에 대해 이를 고문에 의한 타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사죄를 요구했다.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남측이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을 조작한 후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금하고 억지 자백을 시키려고 고문을 가하는 야수적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권두영의 죽음은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고문과정에서 빚어진 것으로서 6공 말기의 전술할 또 하나의 살인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측이 정권안보, 남북대결등의 불순한 목적을 위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변하고 "북과 남의 우리 인민은 이러한 죄행을 절대로 방관시하거나 스쳐 지날 수 없다"면서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과 이번 자살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고백하고 사죄할 것을 요구했다.

발행일 : 93/01/18

제목 : [인터뷰] 대한 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다니엘스

"한국은 인권상황이 나아지고 있지만 유엔인권협약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국제사면위원회(앰네스티) 국제집행위원장 로스 다니엘스(46)는 "한국도 유엔인권협약 가입국으로서 외국의 인권유린사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정회원 가입자격을 실사하기 위해 지난 15일 내한한 다니엘스는 "앰네스티는 70년대부터 한국내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회원들이 탄원편지를 보내는 등 많은 활동을 해왔다"면서 "1백60개국 1백10만명의 회원들은 한국이 양심수들을 조기 석방하고 고문철폐 협약에 가입해 인권보장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앰네스티는 북한인들이 정치 및 시민의 자유를 크게 제약받고 있으며 고문이 행해지고 수감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이 국제기준에 위배된다는 보고서를 낸적이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앰네스티는 조사단을 해당국에 파견해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언론 학계 정부인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과정을 거쳐 이를 공표하며 당사국 회원들이 여기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다니엘스는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했으며 한국 회원들도 주로 외국의 인권유린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한국회원들은 사형제도의 폐지와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앰네스티는 이달초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서한 30만통을 유엔본부와 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니엘스는 한국내 인권단체와 회원들을 방문하고 오는 20일 출국할 예정이다.

발행일 : 93/01/18

#### 제 목 : [기획] 박종철군 사건 관련자 어디서 무엇하나

87년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박종철군(사망당시 21세. 서울대 언어학과 3년) 고문 치사사건이 발생한지 14일로 만 6년이 됐다.

전 국민을 분노케 해 민주화대열에 나서게 한 이사건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을 축소조작한 경찰 간부들에 대한 최종 판결이 사건발생 6년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들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살펴본다

##### < > 고문 경찰관

고문을 총 지휘한 조한경경위(당시 계급. 이하 같음. 47)와 박군의 머리를 욕조에 넣은 강진규경사(36)는 사건 발생 5일만인 87년 1월 19일 고문 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조경위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고문경관 중 유일하게 현재 복역 중이다.

강경사는 1심에서 징역 15년,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대법원에서 확정) 복역 중 지난해 7월 형기만료를 2년 6개월 앞두고 가석방됐다.

박군의 양팔을 붙잡은 황정웅경위(47)와 심금근경장(50) 박군의 상체를 욕조로 숙이게 한 이정호경장(35)은 87년 5월 21일 2차로 추가구속됐다.

그후 황경위는 징역 5년, 심경장은 징역 6년, 이경장은 징역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황경위는 90년 12월 24일 형기만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됐으며 심경장도 형기만료를 1년 5개월 남겨놓고 91 12월 가석방됐다.

이경장은 90년 5월 만기 출소했다. 이들은 당시 모두 치안본부 대공수사 2단 5과2계 소속이었다.

##### < > 은폐 조작 경찰관



당시 치안본부장이었던 강민창씨(60)는 사건발생 8일만인 87년 1월 21일 인책사임했다.

강씨는 1년뒤인 88년 1월 15일 박군이 물고문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검의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황적준씨(48)를 치안본부장실로 불러 부검 소견서를 '단순쇼크사'로 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당시 "답보로 알고 수양하겠다"고 말한 강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곧 풀려났다.

강씨는 90년 8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91년 12월 대법원이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강씨는 이 사건이후 일체의 활동을 중지했다는데 최근 친지가 경영하는 회사의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화번호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등재하지 않을 정도로 노출을 꺼리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강씨의 후임으로 치안본부장이 된 이수창씨(58)는 재임기간중 고문경찰관 축소사실이 터짐에 따라 4개월만인 87년5월27일 사임했다.

이씨는 은폐축소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샀지만 이를 부인했다.

그는 현재 민자당 소속 국회의원이다.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5차장은 조경위등에서 5천만원이 입금된 예금통장을 보여주는등 은폐축소를 주도해 유정방 박원택 경정과 함께 87년5월29일 범인 도피혐의로 구속했다.

유경정은 조경위 등에게 책임을 뒤집어 쓸 것을 권유했으며 박경정은 허위 사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박차장 등은 구속 4달만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 아직까지 서울고법에 계류중이다.

박차장은 경찰청 보안간부연수소의 사무실을 빌려 개인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소는 공산주의 비교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검찰관계자

검찰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87년5월18일)가 있기전 조경위와 강경사외에도 고문가담경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에 관련된 검찰수뇌부는 좌천성 인사를 당했으나 6공들어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지도 했다.

서동권 당시 검찰총장은 87년5월 축소조작사건이 터진뒤 10일만에 수사미흡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으나 89년7월 안기부장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노태우대통령의 정치특보로 있다.

정구영 당시 서울지검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사실상 '좌천'됐다. 6공들어 청와대 사정수석비서관을 거쳐 검찰총장을 지냈다.

이 사건 주임검사였던 안상수씨(48)는 춘천지검으로 전보되자 사표를



내고 변호사를 개업한 뒤 88년 1월 안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축소조작 사실을 폭로했다.

안씨는 "서울지검 수사팀에서 4, 5차례나 조사 및 공소유지 전략을 담은 수사계획서를 상부에 올렸으나 외부압력으로 수사명령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

안씨는 현재 이른바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당시 김성기 법무부장은 87년 2월 조경위등이 수감돼있는 영등포교도소를 방문, 간접적인 사건무마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으나 "의례적인 교도소 순시"라며 부인했고 87년 5월 서검찰총장과 함께 사임했다.

< 기 타

박군이 불고문을 당해 사망했다는 것을 암시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단초를 제공한 중앙대의대 용산부속병원 의사 오인상씨(38)는 현재 중앙대 의대교수로 재직중이며 지난해 10월 영국으로 1년간의 연수를 떠났다.

강민창씨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소신대로 부검 소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록한 일기장을 공개했던 부검의 황적준씨는 고려대 의대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이달 초 미국 국립의료원으로 6개월간 연수를 떠났다.

87년 5월 경찰의 은폐축소사실을 폭로,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는 왕십리성당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 예루살렘 성지순례중이다.

발행일 : 93/01/15

제 목 : 박종철군 고문 경관 5명 중 4명 출감 밝혀져

박종철군 고문 치사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8년과 6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복역중이던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관 강진규씨(35. 87년 사건 당시 경사)와 반금곤(47. 87년 당시 경사)가 이미 가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7월, 반씨는 91년 12월 각각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지난 87년 2월 이 사건과 관련, 조한경씨(당시 경위)와 함께 1차로 구속됐고 반씨는 고문 관련자가 더 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한 끝에 구속됐었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구속됐던 고문경찰관 5명 가운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조한경씨만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을 뿐 나머지 4명은 모두 출소했다.

강, 반씨 외에 징역 5년형이 확정됐던 황정웅씨(당시 경위)는 지난 90년 12월 24일 형기만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 됐고 3년형을 선고 받았던 이정호씨는 같은 해 5월 유일하게 만기 출소했다.

재야법조계에선 "법무부가 그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에 대해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했어도 가석방대상에서 제외해 왔다"며 "비인간적인 고문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고문범죄자도 이 범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분창 당시 치안본부장, 박처원 당시 치안본부5차장, 유정방경정(당시 치안본부 대공5과장) 박원택경정(당시 치안본부 대공5과 2계장) 등에 대해서 지난 91년 12월 28일 유조취지로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내려 왔으나 고법은 1년여가 넘도록 판결을 미루고 있다.

발행일 : 93/01/13

제목 : [현장에서...] 잊혀가는 박종철군의 죽음

그의 초혼묘에 바쳐진 10여송이의 샛노란 국화꽃이 한겨울의 태양빛에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해가 갈수록 그의 죽음의 의미가 세인의 기억속에 사라져 가는 것을 너무 안타까와 하는 듯했다.

지난 87년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불고문을 당하다 숨진 당시 서울대생 박종철군의 6주기 추모제가 10일 낮12시 경기도 남양주군 모란공원묘지의 박군 묘소에서 있었다.

박군의 가족과 대학친구 80여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진 추모제가 끝난후에도 이날 오후내내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띄엄띄엄 이어졌다.

그해 6월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군의 참혹한 죽음은 민주화의 이정표로 우뚝 서 있지만 그의 뜻을 기리는 기념사업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해 추모제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박종철 인권회관' 건립계획이 건립기금부족으로 터를 잡아 놓은지 2년반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 90년7월 가족들이 국가와 고문경찰관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해 일부 지급된 7천여만원과 아버지 박정기씨(65)의 부산 집을 판 돈 4천여만원등을 보태 마련했던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30평짜리 2층집은 인쇄소로 임대해 주고 있는 실정.

아버지 박씨는 "가족들에 의해 근근히 이어져 오던 종철이의 기념사업이 올해에는 꼭 국민적 사업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발행일 : 93/01/11

제목 : 살인혐의 3명 무죄판결... "고문에 의한 자백 인정"

검찰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한 피고인 3명에 대해 재판부가 "고문에 의해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이용웅부장판사)는 19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10년을 선고받은 함광웅피고인(31)등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살인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피고인의 허반신에 맞은 자국이 있었다는 동료수감자의 진술로 미루오 볼 때 고문당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의 목격자가 범행당시 감옥에 수감중이어서 범행현장을 목격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죄선고이유를 밝혔다.

합피고인등은 지난89년12월 전북 김제시 고가름살롱에서 숙칭 '김제 생산과' 두목 정필영씨(32.수감중)와 함께 림살롱주인 박모씨(당시35세)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정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가름살롱 종업원 송모씨(22)로부터 "범행현장에 정씨외에 합피고인등 3명이 같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이를 근거로 합피고인등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송씨는 범행당시 구치소에 수감중이었던 사실이 합피고인등의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밝혀져 송씨의 진술은 거짓진술이었음이 드러났다.

발행일 : 92/12/20

제 목 : [중국] "고문등으로 인권상황 최악"... 국제사면위

중국은 반체제인사 제거를 위해 지난 10년간 정치범 등에 대해 수만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을 자행했으며 이에 따라 인권상황은 극도로 악화돼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9일 밝혔다.

세계적 인권옹호기구인 국제사면위원회는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고문의 실태를 상세히 밝힌 60쪽짜리 보고서를 통해 "반체제 운동에 대한 계속적 탄압이 불법적인 구금과 처형,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석방된 죄수들과 죄수들의 친인척 및 정부와 민간 소식통들의 증언을 토대로 "중국의 감옥에서는 10년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발행일 : 92/12/10



번호 : 1/232

입력일 : 93/12/30 07:58:38 자료량 :19줄

제 목 : &lt; 문의문 &gt; 잡지 인터뷰 들어 최내부에 공세

민주당은 29일 최형우 내무장관이 '말'지와의 인터뷰에서 '사상범에 대해서는 고문수사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 최장관의 확고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등 '정치 장관'인 최장관에 대해 벌써부터 공세를 시작.

박지원 대변인은 "최장관이 비록 내무장관 임명전의 인터뷰라고 해도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지금도 사상범에 대해서는 고문수사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무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고문수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

그는 "그 발언이 잘못됐다면 이에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

발행일 : 93/12/30

번호 : 2/232

입력일 : 93/12/29 12:07:26 자료량 :20줄

제 목 : 고문피해자 치료보상요구 청원

고박종철군의 아버지 박정기씨, 김근태씨부인 인재근씨, 재일동포 간첩단사건의 서준식씨 등 1,219명은 29일 고문피해자의 치료 및 보상을 촉구하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고문은 근절되고 고문피해자들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 고문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대책 ▲ 고문의 근절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즉각적인 유엔고문방지협약 가입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이기택민주당대표를 마포당사로 방문,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을 제정했듯이 군사정권하의 고문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을 제정, 보상조치를 취하도록 정부측에 촉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발행일 : 93/12/29

번호 : 7/232

입력일 : 93/12/21 17:27:55 자료량 :36줄

제 목 : 김근태씨 고문경관 4명, 유죄확정

### 대법원, 김수현 전대공수사단 경감 등 4명 상고기각 ###

## 8년4개월만에 사법처리 매듭, 이근안 경감 공소시효 99년으로 ##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를 고문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선고된 전 치안



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 검-경의 수배를 받고있는 이근안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자의 공소시효가 99년 8월로 잠정 결론 났으며 8년4개월 동안 끌었던 이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도 일단락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21일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불법 체포감금) 및 독직 폭행죄가 적용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이 선고된 김수현(59/전 대공수사단 소속 경감), 징역 2년-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된 최상남(46/당시 경위), 백남은(58/당시 경정), 김영두(55/당시 경위) 피고인 등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김씨의 진술이 고문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실을 생생하게 밝히고 있어 고문도구 등의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더라도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김씨가 전기고문을 당해 발꿈치에 생긴 상처를 목격한 증인들의 진술까지 고려할 때 김 피고인등의 유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등은 지난 85년 9월 당시 민청련 의장이었던 피해자 김씨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전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연행, 11차례에 걸쳐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검찰에서는 무혐의처분을 받았었다.

그러나 지난 88년 12월 서울고법이 김씨와 변호인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된 뒤 항소심에서 김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 백피고인 및 최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이, 김영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돼 법정구속 됐다.

발행일 : 93/12/21

번호 : 20/232

입력일 : 93/11/19 10:08:47

자료량 : 29줄

제 목 : 유고전범재판소, 소장 임명

유엔의 유고슬라비아전범재판소는 18일 안토니아 카세세 판사(이탈리아)를 재판소장에 임명하고 엘리자베스 오디오-베니토판사(코스타리카)를 부소장에 임명했다.

카세세 판사는 이탈리아 피사와 피렌체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쳤으며 지난 87-88년 유럽인권위원회장, 89-93년 유럽고문방지위원회장 등을 역임했다.

카세세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내년 5월부터 전범재판소가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고전범재판소는 지난 17일 정식발족됐으며 항소부 1개와 일반 심리부 2개로 구성됐다.

유고전범재판소는 보스니아 내전에서 일어난 살인, 강간, 고문을 다루기 위해 설치됐으나 규정상 권석재판을 할 수 없고 세르비아측이 전범 인도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재판이 가능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검사가 전범 용의자를 재판정에 세우거나 기소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실제 전범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재판소는 이밖에 3백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수용할 상설 본부조차 갖고



있지 못하며 연간 3천만달러로 예상되는 운영 경비의 확보 방안도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다.

발행일 : 93/11/19

번호 : 21/232

입력일 : 93/11/18 15:20:28

자료량 : 33줄

제목 : **구유고 전범재판소 공식 개소... 2차대전후 처음 헤이그에**

구유고분쟁에서 학살, 강간, 고문 등 인도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각종 만행을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유엔전범재판소가 17일 2차대전후 처음으로 국제사법재판소가 있는 헤이그에서 개소됐다.

칼 아우구스트 플라이쉬하우어 유엔 사법담당사무차장은 국제사법재판소 검사인 라몬 에스코바 살롬 베네수엘라 검찰총장과 각국출신 검사 11명이 참석한 이날 개소식에서 이 전범재판이 구유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과 비극의 악몽"을 끝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범재판소가 유엔 안보리의 힘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고 말했으나 유엔의 힘이 구유고의 분쟁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세르비아계 지도자들은 전범용의자들을 결코 인도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범재판소의 권능을 비웃고 있다.

지난 91년이후 보스니아 회교정부와 세르비아계, 크로아티아계 등 분쟁 당사자들은 20만여명이 사망-실종되고 2백만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한 이 내전에서 모두 학살을 저질렀으나 특히 엄청난 규모의 강간, 살인, 고문 등을 자행한 세르비아계가 가장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미정부는 세르비아계 지도자인 라도반 카라지치와 세르비아공화국의 슬로보단 밀로세비치 대통령이 전쟁을 유발하고 지속시켰다는 점에서 이들을 전범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

전범재판소는 결석 피의자에 대한 심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이들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카라지치는 세르비아계 점령지역에 있는 용의자의 인도를 거부하겠다고 이미 천명했다.

발행일 : 93/11/18

번호 : 22/232

입력일 : 93/11/16 16:24:47

자료량 : 26줄

제목 :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여지 많아"... 국제사면위**

방한중인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국제사무국 피에르 로버트 연구원(32) 등 2명은 16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명동 로열호텔에서 한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문민정부 들어서 한국의 인권상황은 다소 개선됐으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내한, 한국 인권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로버트 연구원 일행은 특히 ▲ 국가보안법 ▲ 국가안전기획부의 존속 ▲ 미흡한 과거 청산 등이 한국의 인권상황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씨는 "한국에는 현재 350여명의 정치범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40-50여명이 양심수로 분류될 수 있다"면서 "김영삼정부는 과거 정권에 의해 구속된 이들 양심수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전세계적으로 인권옹호운동을 벌이는 조직으로 ▲ 양심수 석방 ▲ 정치범에 대한 공정한 재판 ▲ 고문근절 ▲ 사형제도 폐지 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 세계 70여개국에 120만명의 회원을 갖고 있다.

발행일 : 93/11/16

번호 : 28/232

입력일 : 93/10/28 10:32:24

자료량 : 30줄

제목 : 국제사면위, 알제리에 처형중지를 촉구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는 28일 알제리에 대해 연쇄적인 처형의 중단과 범행자택을 끌어내기위한 고문행위의 중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는 알제리가 공정재판 진행에 관한 국제법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포고령에 따라 설치된 특별재판소가 지난 20개월동안 회교도 "테러 활동자" 287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며 그중 26명이 총살되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처형된 26명중 20명이 특별재판소에서 선고를 받았으며 이날 11일에만도 13명이 처형되었다면서 "특별재판소의 재판은 모든절차에서 공정재판을 위한 국제기준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피의자들이 불법적으로 장기간 독방에 감금되어 고문을 당하고 있으며 판사들은 고문으로 끌어낸 진술을 흔히 증거로 채택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91년 1월 지금은 불법화된 회교구국전선이 승리할 기미를 보이자 알제리정부는 총선거 2차투표를 취소했다. 이와 관련된 폭력사태로 적어도 1천5백명이 숨졌으며 알제리는 92년 9월에 내려진 테러진압 포고령에 따라 3개의 특별재판소를 설치했었다.

발행일 : 93/10/28

번호 : 35/232

입력일 : 93/10/15 17:10:54

자료량 : 72줄

제목 : 북한, 지난 30년간 수천명 고문-처형... 국제사면위 보고서

북한 전세계정권은 지난 30년간 수천명을 고문하거나 처형했으며 양심수를 수만명 이상을 구금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14일 밝혔다.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사면위원회는 이날 발표한 자칭 '지상낙원'인 <비밀의 나라> 북한에 대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이러한 총체적인 인권침해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국제사면위원회 우려의 개요'라는 제목으로 펴낸 이 보고서는 투옥경험자와 민간소식통, 지난 91년 평양을 방문한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과 만난 북한 관리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에 두번째 대표단을 파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에서는 매년 수십명이 불공정한 재판절차를 거친 뒤 처형되고 있으며 강제수용소에 갇혀 있는 양심수 가운데는 재일교포와 그들의 일본인 아내가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민간인들은 정부와 노동당의 엄격한 이념적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이념적 탈선이나 기타 반 혁명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처형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목격자들은 지난 92년 11월 이런 종류의 처형이 행해졌다고 보고했으며 북한의 민간 소식통들은 이같은 일이 자주 일어난 것으로 전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이어 북한이 최근들어 식량과 에너지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투옥경험자들은 동료 재소자들이 기아와 추위 때문에 사망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평양을 방문했던 한국인들도 지난해 이후 밀수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등의 경제범죄로 처형되는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한다"고 공개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관리들이 적어도 12군데에 위치한 강제수용소에 수만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다는 보도내용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한 북한관리는 그 대신 91년 현재 전국에 있는 3개 강제노동수용소에서 1천여명 가량이 노동을 통한 재교육을 받고 있으며 '반국가사범'이 격리된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목에서 북한측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구체적인 동기가 무엇인 지는 지목하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또 북한 헌법과 법률이 명목적으로는 인권침해를 방지토록 돼 있으나 내용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평화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범죄로 간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민간 소식통을 인용, '반국가사범'으로 천 가족이 수감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시바타 고조라는 일본인은 지난 64년 수감됐는데 그의 아내와 아이들도 역시 투옥된 것으로 믿어지며 마지막으로 소식이 전해진 지난 90년에는 재교육수용소에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안전문제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또다른 수감자는 지난 65년 부인과 함께 북송선을 탄 재일교포라고 국제사면위원회는 소개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의 민간소식통을 인용, 이들 가족은 지난 82년 12월 사회안전부 관리의 명령으로 우마차에 실려 쫓겨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해외에서 망명한 사람의 가족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몇몇 경우 이런 일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이 사라진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60년대 후반 한국인 남편을 따라 북한으로 간 1천8백여명의 일본인 아내들도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중 일부로 이들중 대다수는 일본의 친척과 편지왕래를 하고 있으나 일부는 실종되거나 강제수용소 수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발행일 : 93/10/15

번호 : 36/232

입력일 : 93/10/12 18:57:01

자료량 : 18줄

제목 : 조승식 검사등 검찰관계자 7명 독직등 혐의 피소

서울지검에 연행돼 고문수사끝에 보험금 사기사건 피의자로 몰려구속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았던 김학동씨(42/택시운전사)는 12일 수사를 담당했던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 조승식 검사(41/현 수원지검 강력부장)등 검찰 수사관계자 7명을 독직폭행등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조 검사등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금 사기사건을 수사하면서 89년 10월 23일 서울지검 11층 특별조사실로 강제연행한 뒤 쇠파이프 등으로 허벅지 등을 구타하고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9월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3천만원의 배상판결을 받은바 있다.

발행일 : 93/10/12

번호 : 40/232

입력일 : 93/10/08 15:01:03

자료량 : 29줄

제목 : 이근안 검거 수사활동 미흡

경찰이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를 검거하기 위해 들인 수수활동비는 모두 3천9백여만원으로 다른 주요 미제사건 수사비에 비해 훨씬 적어 이씨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88년 12월 이씨가 전국에 지명수배된 후 4년8개월 동안의 수사비는 모두 3,982만원으로 월평균 69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화성부녀자 연쇄살인사건에는 86년 12월 수사본부 설치 이후 6년 8개월 동안 월평균 643만원씩 모두 5억1천5백만원이 수사비로 쓰여졌으며 지난 6월 발생한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에는 월 1천만원 가까이 지출됐다.

또 김문기 전의원 집 강도사건 수사비도 8월 한달동안 9백만원을 넘어섰으며 전주 다가동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간의 살인사건에는 월 490만원이 지출되는 등 주요 사건의 경우 월 3백-4백만원이 수사비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주요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본부 12개를 설치해







제 목 : [토론회] 고문 추방 제도적 개선 시급

잠 안재우기, 고춧가루 탄 자장면 먹이기, 담뱃불로 지지기, 밧줄로 묶고 때리기 그리고 자살기도로 이어지는 정신이상증세.

수사기관의 밀실에서 자행되는 가혹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의 사례보고 및 고문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에서 법조계와 의료계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끌려가 잠 안재우기 등의 고문을 당한 뒤 정신병원을 떠돌며 후유증을 앓고 있는 분국진(34)씨 후원모임이 주최한 이날 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육체를 파괴하는 고문은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남편과 동생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참혹한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토론장은 탄식과 울분이 뱀 한숨으로 가득찼다.

86년 11월 거리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끌려가 쇠파이프 등으로 구타당한 뒤 영등포구치소에서 고춧가루를 탄 자장면 먹이기 고문을 당한 강환웅(30·당시 중앙대1)씨의 누나 강희숙(33)씨는 "동생이 출소한 뒤 환청에 사로잡히는 등 정신분열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며 울먹였다.

같은 해 4월 시위 도중 연행돼 구치소로 넘겨진 뒤 징벌방에 갇혀 집단 구타를 당한 김복영(29·당시 연세대3)씨의 누나(33)는 "너희들은 항상 나의 뇌수에 칼침을 꽂고 나의 꿈은 항상 피비린내로 얼룩졌다"고 써놓은 복영씨의 일기장을 읽으며 흐느끼기도 했다..

고문의 마수는 공안사건뿐만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 피의자에게도 뻗친다.

지난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경찰에 끌려갔다 고문을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한 김종경(43)씨의 부인 오윤자(40)씨는 "순박했던 남편이 고문을 당한 뒤부터는 손이 떨리고 헛소리를 하는 등 완전히 폐인이 되고 말았다"며 치를 떨었다.

이날 고문추방을 위한 법적 문제를 발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전해철 변호사는 "현행 형법이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는데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국가가 법을 지키려는 의지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인간의 인내성을 시험하는 고문을 추방하기 위해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강문 기자



<4>

# 0.8평 떡방에서의 12일, 그리고 정신이상

고 발 인 : 최 경자  
 본 적 : 전남 함평군 해보면 용산리  
 주 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1-126  
 주민등록번호 : 52052- 2057621  
 피 고 발 인 : 황용하 (서대문구치소 보안 1계  
 감주임), 유병렬 (서대문구치소  
 장), 외 성명미상 교도관 3인.

저는 (민청련 사무국장이었던) 윤여연의 처입니다.

저의 남편 **윤여연**은 1985년 가을 민청련 사건으로 1여년간 수배 당해오다가 1986년 11월 4일 밤 10시경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어 11월 4일 남영동 치안본부로 이송, 조사 중 11월 6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약 10여일간 조사를 받고 11월 14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 서울지검 공안 2부 508 안왕선)

11월 14일 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시작된 교도관들에 의한 폭행 및 징벌, 이에 항의한 단식등으로 남편은 심한 편집증등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선고 공판까지도 앞당겨 석방은 되었으나 현재는 한양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이며 담당의사의 견해로는 3개월 입원치료와 3개월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치료 후에도 만성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으로서의 석방의 기쁨보다 칭찬벽력 같은 이런 사태에 즈음하여 이러한 가혹한 폭력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희 남편과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소내 폭행 중단과 가해자 엄벌 및 응분의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교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여연이 서대문구치소로 송치되어, 구치소에서 받았던 가혹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 기록중 서대문구치소 내에서 받은 가혹행위 기록은 윤여연의 금치기간 (12.8-12.24) 중인 12월 15일 10시경 박성민 변호사와 면담도 중 폭로된 사실이며 이후 편집증세를 기록한 내용은 서대문구치소 수감 당시 저와의 면회도중 들었던 대화내용을 간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 교발내용

11월 14일 : 하오 6시 서대문구치소로 송치되는 명적과정에서 집시법과 국가안보법 위반혐의로 구속된자들을 열밖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구

속사유를 기록하라고하여 기록중 옆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수감중인 신명식씨가 집단 구타당하고 있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며 그 옆으로 갔더니 같은 놈이라고 하며 교도관들로부터 머리를 잡히고 흔들리는 수모를 당하는 등 구타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식사시간 동안에도 3분전, 1분전, 10초전 등으로 제한당하였으며 봉사대 재소자들로 하여금 옥설을 퍼부게 하였습니다.

11월 15일 : 아침점검 시간에 교도관들로부터 질차에 따라 직급을 받고난 후 구치소장 면담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11월 16일 : 다시 구치소장 면담을 집필로 신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11월 17일 : 사방에 있는 양심수들이 '85년 하반기 소내에서 자행된 폭행을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명적과정과 그 이후 질차에서 받았던 폭행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0일 : 오전 관주임이 저를 호출해 내어 단식을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으나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니 단식중이던 다른 양심수들이 식사를 하고있어서 단식을 풀었습니다.

12월 8일 : 단식을 푼 후 20일동안 계속 행형법에 따른 구치소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않아 저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하오 6시저의 명적과정시 폭행사실과 14일 이전 소내에서 자행되어 왔던 폭행을 항의하며 약 10여분간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10여명의 교도관들이 사방내까지 들어와 저를 구타하면서 팔다리를 업고 보안 2계 사무소 앞까지 와서는 수감을 해우고 온몸을 공공묘역 보안과 지하실로 끌고갔습니다. 거기에는 항의관계로 이미 8명의 학생 양심수들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12월 9일 : 포승 수감한 채 하루를 보내고 점심때쯤 다른 징벌방으로 옮기며 계속 교도관들로부터 옥설을 받아 제가 '교도관님 왜 옥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 교도관이 머리를 잡고 구타를 하였습니다. 당시 징벌방에는 이종환, 조유식, 이근희등 여러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후 이들 학생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하고는 따로 혼자만을 무릎을 꿇게하여 거부하였더니 머리를 잡고 수회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각각 제 2보호실



독방으로 옮겨져 24시간 내내 포승수갑한 채 식사, 수면, 소변, 대변등을 하였습니다. 식사시간 만이라도 수갑을 풀어달라고 하였으나 폭행당하였습니다.

12월 10일 : 두통이 심하고 뚜렷한 외상은 없었지만 온 전신이 아프며 쑤시니 치료를 요구한다고 했더니 또다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12월 11일 : 오후 1시경 옆방에 있던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를 듣고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달려가는 교도관들을 쳐다보자 한 교도관이 저에게 '왜 보느냐? 눈깔을 빼버릴까보다' 라고 폭언을 하길래 저도 화가나서 '빼라' 라고 대들었습니다. 이로인해 2,30명 교도관중 2명의 교도관이 달려들어 머리를 잡고 빙빙 돌리며 무릎을 꿇고 구둑발로 가슴을 차며 땅바닥에 머리를 짓이기고 전신을 채끼며 차고 때리고 밟고 하는등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살인적 가혹행위를 하였습니다.

12월 12일 : 아침에 징벌방에 와있는 양심수들과 함께 특별한 날이므로 단식을하기로 약속하고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자 단식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잡고 빙빙돌리다 머리를 땅바닥에 내리쳐 짓이기고 구타를하였습니다. 오후 3시 보안1계 사동 징벌방으로 격리 감금되었습니다. 격리 징벌방으로 옮기던 중 교도관이 계속 욕설을 가하자 '왜 욕을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항의한다고 무릎을 꿇으라고하여 거부하였고 관규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라고 하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황용하와 그의 교도관 3인으로부터 4시간동안 머리를 잡고 흔들기, 꿇어 앉히고, 무릎을 밟기, 꼬집고 할퀴고 머리를 잡고 끌고다니는등 수모를 당하였으며 구타당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머리카락이 4분의 1쯤 빠졌으며 무릎은 시퍼런 멍이 들었고 가슴이 몹시 결리며 심한 두통이 오고 전신이 아프며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 엑스레이, 머리진찰과 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이날 감금되었던 지하 감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는 0.6평정도 될까하는데 두팔과 다리를 뻗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햇빛이라곤 티끌만치도 세어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곳이며 외부의 공기라도 전혀 통풍이 되지않아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정도 심하냐하면 단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질식하여 쓰러질 정도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먹방에 취들이 수시로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먹방에서 저는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냈습니다. 이 기간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해 온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와중에서도 보안 1계 감구조임 황용하는 오물이 가득찬 변기통을 향해 숨쉬게 하고 취침을 할때도 변기통에 코를 대게하고 잠시라도 이탈하면 마구 욕설과 구타를 가하였습니다.

12월 15일 : 처음으로 의무관 (구치소내 고정 의사)이 찾아와 어디 아프냐고 물기에 가슴이 아프니 파스라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면 예전처럼 또다시 응분을 가할까봐 통증에 대한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사람이 의무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피오증을 늘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고 온 전신을 가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와같은 폭행과정에서 운여연은 먼저 폭행을 가한다든지 폭언을 한바가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혹한 폭행을 받은 운여연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몹시 불안증세를 일으켰으며 무언가 항상 의심하고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운여연과의 면회과정에서 했던 대화 내용을 보면 그 증세가 계속 심각해져가고있음을 현격하게 보여줍니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7일 : 방을 5사로 옮겼다. 방이 형편없이 좋지않다.

1월 31일 : 주변에 간첩이 뒤따르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매사에 신경을 써라.

2월 3일 : 내 주변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 내가 만약 출소한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재수감될 것이다. 구치소 내에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다.

2월 5일 : 나같은 인간이 뭘안다고 날뛰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한 인간이고 싶다. 조심해라 주변이 수상하다.

2월 7일 : 나는 왜 이러 불안한지 모르겠다. 두렵다. 공포분위기다. 누군가 나의 신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친인 최경자에게도 가할지 모르니 주변을 조심해라.

2월 9일 : 재판이 있기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간첩을 신고하러 나왔습니다. (이날은 구형공판이 있었던 날임)

2월 11일 : 소내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에게 많은것을 알고있다. 심지어는 나의 어린 시절, 국민학교, 아버지, 처,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나를 죽이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이곳에서 죽이지 못하면 출소한 이후라도 죽이겠다고 한다. 불안해서 식사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꼭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이다. 헌데 2,30여명이 나에게 접근하며 협박한다. 오늘 저녁에 머리를 조를지도 모른다. 죽음이 두렵다. 내가 왜 이렇게 그들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참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소내 특수요원 2,30여명이 구치소측과 짜고 교도관, 양심수들까지 한패거리가 되어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나는 그들을 간첩이라고 고소했다. 나의 신변안전보장을 해다오, 나를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해달라. 담당점사와 만나게 해달라 그러기 전에는 단식을 풀 수 없다. 난 절대로 비겁하게 자살하지 않겠다. 그들은 타살시켜 놓고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다. 나는 극히 정상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원한은 꼭 갚겠다.

2월 13일 : 구치소 측에서 나를 물고문으로 죽이려고 했다.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길래 따라가 물에 손을 넣어보니 너무 뜨거웠다. 뜨거운물에 나를 사형수들과 함께 목욕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로 하여금 나를 목조아 죽이게 하였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섭다. 두렵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장영달씨 뿐이다. 1사로 옮겨달라. 나는 저녁에도 잠을 잘 수 없다. 또한 밥을 먹을 수도 없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것이다. 다시는 못만날 것이다. 어찌면 또 매 맞을지도 모른다. (이때 처인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를 보고 윤여연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네 신변에 무슨일이 생겼지? 그렇지?

위의 사실에서 처럼 제가 저의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된것은 남편의 구형 공판날인 12월 9일이었습니다. 이날 윤여연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재판이 있기전에 판사님께 몇 말씀 올리겠다' 하고는 '서울구치소에 간첩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다'며 앞뒤가 뒤죽박죽, 횡설수설한 이야기를 늘어놓은걸로 보아 무엇인가 몹시 쫓기는 듯한 공포감이 엿보였으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2월 11일 면회과정에서 윤여연은 피해망상 증세가 현격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과의 차단된 생활에서 잠시 야기될 수 있는 단순한 피해의식일거라고 판단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의연하고 건강했던 남편이 단 며칠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편이 그렇게도 잔뜩히 바라던 담당점사와의 면담을 주선해 보기 위해 검찰청으로 향하였습니다. 담당점사를 만났더니 검사는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해 졌더군 법정에 나와 하는 말을 보면 알지'라고 말하며 '시간이 없으니 다음주에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였습니다.

2월 12일 '85년부터 서대문구치소의 짝 홀수 면회제실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안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대문구치소로 가서 부소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부소장 면담결과 소내에서도 윤여연이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신경안정제까지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소장은 차단된 생활로 일시적으로 과민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2월 13일 면회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발작증세가 심했는지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며칠을 굶고 잠을 못 잤으며 세수도 아니하고 방문을 걸어잠그고 잔다고 하는 등 몹시 불안해 하였으며 그 물결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받다 죽은 종철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소내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살을 하기위해서 창틀에 줄을 매어 목을 조울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왜 죽을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간첩이 죽이기전에 내가 스스로 죽을려고 그랬다'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부탁한다.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유언까지 하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데리고 가는데도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오늘이 우리가 이승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합니까? 말을 잃고 으르렁 툭툭과 오열로 주체할 수 없는몸을 가누며 차라리 내가 미쳐버리고 싶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접하고 나서 저는 13일 다시 부소장 면담신청을 했습니다. 부소장 면담 과정에서 '제가 윤여연의 상태가 몹시 심각한데 앞으로 계속 저런 상태로 방치해 둘 생각입니까?'라고 말했더니 부소장은 '그렇지않아도 외래의사가 들어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구치소의 면회과정은 '85년 하반기 이후 짝 홀수제를 채택하여 이들에게 한번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4, 15, 16일 3일간 면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저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서울구치소 민원실장에게 면회를 허용해 줄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도 홀 짝수를 가리지 않고 면회를 허용해준 예가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민원실장이 대뜸 하는 말이 '윤여연 그사람 정신이상자더군 교도관들끼리 이야기만 해도 간첩이 나타났다고 소리치더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원실장이란 자도 이와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원리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끝까지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현실과 환상속에서 헤매이는 남편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면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연찮게 집으로 연락해보니 선고 일자가 원래 23일로부터 6일이 앞당겨진 17일



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면회 못한 3,4일간 남편의 소내에서 얼마나 심하게 발작을 하였는지 단숨에 짐작할 수 있었으며 선고일자 변경에는 용인병원 정신신경과 의사의 진료결과 정신분열증으로 진단이 큰 작용을 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일 1시 30분까지 담당검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날짜를 당긴 이유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검사는 검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판사에게 찾아가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정연옥 판사가 '건강이 안좋다는데 어떡하?' 라고 질문을 하자 윤여연은 '정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판사는 '사건이 경미하여 1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나 건강이 좋지 않기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출소를 대비하여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중 보안과장은 구내방송을 통해 윤여연의 가족은 보안과로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면담중 보안과장은 '오늘 이처럼 선고 날짜까지 변경시켜 출소하게 해준것은 구치소의 숨은 공로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구치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역시' 짐작대로다'고 하며 '저희 구치소측은 매우 신경을 써서 잘 봐 주었다' 라고 회유하고는 '우리 구치소측이 무엇인가 썰려서 면담을 요청한것이 아니다' 는 등의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것에 대비하여 협박을 가 하였습니다.

그날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몹시 불안해 하면서도 오랫동안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정신이상자!!!

이 무슨 청천벼락입니까? 것처럼 의지력이 강하고 의연하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정신이상자 라는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다니!!!

이런 사실이 꿈이길 바랍니다. 아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꿈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젠 제 바로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저의 남편이 정신이상자가 되어 영혼과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차라리 신체적인 불구가 되었다면 더 낫았을걸 하고 못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석방!

이 얼마나 가슴설레이고 얼마나 소망했던 일입니까?

그러나 저에게 이말은 기쁨보다 슬픔을 아니 슬픔보다 치졸한 분노를 용솟음치게 합니다. 견강한 몸이라면 감옥 안과 밖이 다를게 없는것이 오

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 윤여연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또다른 희생제단에 바쳐져 정신이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두살된 사내아이와 세살된 여자아이를 업고 걸으면서 이 시련을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거꾸러져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다시는 이러한 고문, 폭행, 용공조작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어 투옥된 많은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고 이 땅의 민주화가 활짝 피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염원하며 저도 그날까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즐기게 싸울것입니다. 미약한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투쟁해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87년 2월 24일

윤여연의 처 최경자



< 23P에서 계속 >

이고 국가기관의 밀실 또는 별실에서 공공연히 계속된다면 언제든 법없이 고문 못한 경우가 없듯이 그 제도적 장치보다는 운용면이나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감독 제도가 있어야만 재소자인 신체와 정신 생명은 보장될 수 있다. 그외에도 불펜을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넣고 비트는 방법, 추운 겨울에 옷을 훌랑 벗기고 찬물을 끼얹어 시멘트 바닥에 앉혀놓는 방법. 삼복더위에 1평 정도 방에 8~10명 정도 넣어서 앉지도 못하고 더위에 고통받게 하는 방법. 지하실과 조사실 지하 반공호에서 계속 잠을 못자게 하는 방법. 겨울에 옷을 벗기고 묶은 뒤 독방에 넣어서 추위로 고통받게 하는 방법. 독방에 넣고 창문을 떼어 버리고 침구를 주지 않는 방법 (대부분 설사와 몸살을 동반하는데 치료를 해주지 않아 더욱 고통을 받게 방지하는 경우가 많다).



# 탄원서

탄원인 주소: 서울시 구로구

전화: 615-2048

탄원인: 최경자(崔京子)

## 김영삼 대통령께

메마른 척박한 이땅에도 민주화가 왔다고 군화발에 갈갈이 찢겨진 피멍든 가슴에도 이제는 민주화가 되었다고 기뻐했는데, 아직은 아픔도 상처도 슬픔도 체제도 그대로입니다.

힘의 논리만이 강조되는 세상, 사람도 구조도 제도도 그대로인 세상, 민주화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렇듯 고문후유증으로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의 나날로 살아가는 여기 민초의 삶이 있습니다.

기술도 경력도 벌어놓은 돈도 없이 오늘도 밑바닥 인생의 행로에서 하루하루를 전전하면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세상을 원망하면서 가진 자, 돈있고, 힘있고, 백있는 자들을 비난하면서 여기 한 가닥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안고 문민정부에게 탄원서라도 제출해 보고저 합니다.

본인이 이 탄원서를 쓸 때까지 술한 망설임도 있었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감히 글을 쓰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물론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망가져 버린 내 남편의 명예회복과 응분의 보상도 중요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사회적 인식이 정신병이라면 터부시하는 관행과 더군다나 자식들이 자라고 있으니 더더욱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러다가는 좋아지겠지, 저러다가는 괜찮아지겠지, 하는 희망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남편 윤여연은 80년 당시 숭실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한 적이 있고, 그 일로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첫 구속을 당하였습니다. 또, 86년에는 '망월동 5.18 묘역'을 참배하고, 민청련 사무국장의 자격으로 민청련 총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두 번의 구속과 고문으로 급기야 남편은 86년 구속되어 감옥에서부터 정신분열증세를 보였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휘청거립니다. 한 군데 정착하지를 못합니다. 단지 세상을 원망하며 설령 일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시한부 1개월 자리일 뿐…….

그의 병명은 신경성 편집증.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허상 속에 누군가를 의심하며 미워하며 누군가에게 도청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누군가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시국사건이라도 뉴스에 나오면 자기 때문이라



고 발 인 : 최 경 자.

본 적 : 전 남

주 소 : 서울 특별시

주 민 등 록 번 호 :

피 고 발 인 : 황 용 희(서대문 구치소 보안 1 계 갑구주임), 유 병 린(서대문 구치소장), 외 성명미상 교도관 3인.

저는 윤여연의 처입니다.

저의 남편 윤여연은 1986년 11월 3일 밤 10시경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어 11월 4일 남영동 치안본부로 이송, 조사 중 11월 6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약 10여일간 조사를 받고 11월 14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담당검사 서울지검 공안 2부 508 안왕선)

11월 14일 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시작된 교도관들에 의한 폭행 및 징벌, 이에 항의한 단식등으로 남편은 심한 편집증 등 정신 이상증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선고 공판까지도 앞당겨 석방은 되었으나 현재는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이며 담당 의사의 견해로는 3개월 입원치료와 3개월의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치료 후에도 만성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으로서는 석방의 기쁨보다 청천벽력같은 이런 사태에 즈음하여 이러한 가혹한 폭력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희 남편과 같은 경우가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의 즉각 중단과 가해자 엄벌 및 응분의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여연이 서대문 구치소로 송치되어 구치소에서 받았던 가혹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아래 기록중 서대문 구치소 내에서 받은 가혹행위 기록은 윤여연의 금치기간(12.8 - 12.24) 중인 12월 15일 10시경 박성민 변호사와 면담도중 폭로된 사실이며 이후 편집증세를 기록한 내용은 서대문 구치소 수감당시 저와의 면회 도중 들었던 대화내용을 간추려서 기록한 것입니다.

고 발 내 용

11월 14일: 하오 6시 서대문 구치소로 송치되는 명적과정에서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자들을 열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구속 사유를 기록하라 고하여 기록 중 옆에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구속 수감 중인 신명식씨가 집단 구타당하고 있어서 '왜 그러느냐?' 고하며 물으며 그 옆으로 갔더니 같은 높이라고 하여 교도관들로 부터 머리를 잡히고 흔들리는 수모를 당하는 등 구타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식사시간 동안 3분전 1분전 10초전 등으로 제한 당하였으며 봉사대 제조자들로 하여금 욕설을 퍼붓게 하였음



니다.

11월 15일 : 아침점검 시간에 교도관들로부터 절차에 따라 직급을 받고 난 후 구치소장 면담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11월 16일 : 다시 구치소장 면담을 집필로 신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11월 17일 : 사방에 있는 양심수들이 86년 하반기 소내에서 자행된 폭행을 항의하는 단식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명적과정과 그 이후 절차에서 받았던 폭행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0일 : 오전 관구주임이 저를 호출해 내어 단식을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당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으나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오니 단식중이던 다른 양심수들이 식사를 하고 있어서 단식을 풀게 되었습니다.

12월 8일 : 단식을 끝낸 후 20일동안 계속 행형법에 따른 구치소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아 저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하오 6시 저의 명적과정시 폭행사실과 14일 이전 소내에 자행되어 왔던 폭행을 항의하며 약 10여분간 구호를 외치게 시작하였습니다. 이 때 교도관들이 사방내까지 들어와 저를 구타하면서 팔다리를 업고 보안 2개 사무소 앞까지 와서는 포승 수갑 시키고 보안과 지하실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항의관계로 이미 8명의 학생 양심수들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12월 9일 : 포승 수갑한 채 하루를 보내고 점심때쯤 다른 징벌방으로 옮겨지며 계속 교도관들로부터 욕설을 받아 제가 '교도관님 외욕을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니 교도관이 머리를 잡고 구타를 하였습니다. 당시 징벌방에는 이종환, 조유식, 이근희 등 여러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후 이들 학생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하고는 따로 혼자만을 무릎을 꿇게하여 거부하였더니 머리를 잡고 수회 구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각각 제2보호실 독방으로 옮겨져 24시간 네네 포승 수갑한 채 식사 수면 소변 대변등을 하였습니다. 식사시간만이라도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하였으나 폭행당하였습니다.

12월 10일 : 두통이 심하고 또한 뚜렷한 외상은 없었지만 온 전신이 아프고 췌시니 치료를 요구한다고 했더니 또 다시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12월 11일 : 오후 1시경 옆방에 있던 학생들이 노트를 부르기 시작하자 이를 듣고 교도관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달려가는 교도관들을 쳐다보자 한 교도관이 저에게 '외 보느냐? 눈 같음 베비립까보다' 라고 폭언을 하길 테 저도 화가나서 '베터'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30명 교도관 중



2명의 교도관이 달려들어 머리를 잡고 빙빙 돌리며 무릎을 짓밟고 구  
뿃발로 가슴을 차며 땅바닥에 머리를 짓이기고 전신을 제끼며 차고 때리  
고 밟고 하는 등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살인적 가혹 행위를 받았습니다.

12월 12일 : 아침에 징벌방에 와있는 양심수들과 함께 특별한 날이므로 단식을 하기  
약속하고 단식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러자 단식을 주동하였다는 이유로 머  
리를 잡고 빙빙 돌리다 머리를 땅바닥에 내리쳐 짓이기고 구타를 하였습니  
다. 오후 3시 보안 1개 시동 징벌방으로 격리 감금되었습니다. 격리 징벌  
방으로 옮기던 중 교도관이 계속 욕설을 가하자 '외 욕을 하십니까?' 라고  
항의하자 항의한다고 무릎을 꿇으라고 거부하였고 관규를 지키겠다고 맹  
세하라고 하자 불응하였다고 황용하와 그외 교도관 3인으로부터 4시간동안  
머리를 잡고 흔들거 끌고 안히고 무릎을 밟기 포집고 할퀴고 머리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 수모를 당하였으며 구타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머리카락이  
4분의1쯤 빠졌으며 무릎은 시꺼먼 멍이 들었고 가슴이 몹시 걸리며 심한  
두통이 오고 전신이 아브며 도저히 움직일 수도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러한 통증이 너무 심해 엑스레이, 머리진찰과 치료를 요구하였습니  
다. 제가 이날 감금되었던 지하 감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는 0.6 평  
정도 될까 하는데 두팔과 다리를 뻗으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  
이었습니다. 자연광없이 탁판 틈만으로도 세어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곳이며  
외부의 공기와의 전혀 통풍이 되지 않아 공기는 매우 탁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하면 단 1분만 있어도 호흡곤란을 느끼며 집식하여 쓰러  
질 정도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그 먹방에 쥐들이 수시로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비좁은 먹방에서 12월 12일부터 24일까지  
지냈습니다. 이기간동안 죽음의 그림자가 엇스해 온것을 느끼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으며 그 와중에서도 보안 1개 감규주임 황용하는 오물  
이 가득찬 변기통을 향해 숨쉬게 하고 취침을 할때도 변기통에 코를 대게  
하고 잠서탁도 이따하면 마구 욕설과 구타를 가하였습니다.

12월 15일 처음으로 의무관(구치소내 고정의사)이 찾아와 어디 아프냐고 묻기에 가슴  
이 아프니 짜스락도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  
하였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면 예전처럼 또다시 응분을 가함까봐 통증에  
대한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야 그사람이 의무관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씨오증을 늘 정도로 건강이 악  
화되었고 온 전신을 가늘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위의 금치기간 동안 가혹한 폭행을 받은 윤여연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몹시 불안증세를 일으켰으며 무언가 항상 의심하고 의기소침에 있었습



니다.

제가 최근 은연연과의 면회과정에서 했던 대화 내용을 기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27일 : 밥을 5사로 옮겼다. 밥이 형편없이 좋지 않다.

1월 31일 : 주변에 간첩이 뒤따르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매사에 신경을 써라.

2월 3일 : 네 주변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 네가 만약 출소한다면 합지라도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제수감될 것이다. 구치소 내에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다.

2월 5일 : 나같은 인간이 뭘 안다고 남뛰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한 인간이고 싶다. 조심해라. 주변이 수상하다.

2월 7일 : 나는 왜이리 불안한지 모르겠다. 두렵다. 공포분위기이다. 누군가 나의 신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처인 최경자에게도 가할지 모르니 주변을 조심해라.

2월 9일 : 재판이 있기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간첩을 신고하러 나왔습니다. (이날은 구형 공판이 있었던 날임)

2월 11일 : 소내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나의 어린시절, 국민학교, 아버지, 처, 주변의 모든 사람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었으며 나를 죽이겠다고 수시로 협박하고 있다. 이곳에서 죽이지 못하면 출소한 이후라도 죽이겠다고 한다. 불안해서 식사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꼭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이다. 현대 2,30여명이 나에게 접근하며 협박한다. 오늘 저녁에 머리를 조를지도 모른다. 죽음이 두렵다. 내가 왜 이렇게 그들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참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잡지는 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소내 특수요원 2,30여명이 구치소측과 짝고 고도관, 양심수들까지 한패거리가 되어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나는 그들을 간첩이라고 고소했다. 나의 신변 안전 보장을 해다오. 나를 다른 방으로 옮기게 해달라. 담당 검사와 만나게 해달라. 그러기 전에는 단식을 풀 수 없다. 난 절대로 비겁하게 자살하지 않겠다. 그들은 타살시켜 놓고 자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다. 나는 극히 정상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원한은 꼭 갚겠다.

2월 13일 : 구치소 측에서 나를 묶고문으로 죽이려고 했다. 목욕을 하러 가자고 하길래 따뜻한 물에 손을 넣어 보니 너무 뜨거웠다. 뜨거운 물에 나를 사형수들과 함께 목욕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로 하여금 나를 목조이게 하여 죽게 하였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섭다. 두렵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장영달씨 뿐이다. 1사로 옮겨 달라. 나는 저녁에도 잠을 잡 수 없다. 또한 밥을 먹을 수도



었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일 것이다. 다시는 못만날 것이다. 어쩌면 또 매맞을지도 모른다. (이때 처음 제가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 이튿날 보고 온 여언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녁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지? 그렇지?

위의 사실에서 처럼 제가 저의 남편에게 처음으로 이상이 있다고 느끼게 된 것은 남편의 구형 공판날인 12월 9일이었습니다. 이 날 윤여언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 '재판이 있기 전에 판사님께 몇 말씀 올리겠다' 하고는 '서울 구치소에 간첩이 있어서 신고하러 왔다' 하며 앞뒤가 뒤죽 박죽, 정습 수습한 이야기를 늘어 놓은 걸로 보아 무엇인가 몹시 쫓기는 듯한 공포감이 엿보였으며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2월 11일 면회과정에서 윤여언은 피해망상 증세가 현격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변과의 차단된 생활에서 짐시 야기될 수 있는 단순한 피해의식 일거라고 판단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렇게 의연하고 건강했던 남편이 단 며칠 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남편이 그렇게도 간곡히 비락던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우선해 보기 위해 감찰청으로 향하였습니다. 담당검사를 만났더니 검사는 '그 사람 정신이 이상해졌더군. 법정에서 나와 하는 말을 보면 알지.' 라고 말하며 '시간이 없으니 다음주에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며 가버렸습니다.

2월 12일 85년부터 서대문 구치소의 적 홀수 면회제 실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불안해서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서대문 구치소로 가서 부소장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부소장 면담결과 소내에서도 윤여언이 정신이상 증세를 일으키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신경안정제까지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소장은 차단된 생활을 하다보면 일시적으로 과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2월 13일 면회 과정에서 저는 남편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발작 증세가 심했는지 한 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며칠을 곱고 잠을 못 잤으며 세수도 아니하고 방문을 걸어 잠구는 등 몸골이 많이 아렸습니다. 그는 남영동 치안본부에서 고문을 받다 죽은 종첩이 이야기를 하였읍니다. 소에서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자살을 하기위해서 참틀에 줄을 매어 목을 조음' 려고 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의 죽을 려고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간첩이 죽이기 전에 내가 스스로 죽을 려고 그랬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 잃 부' 탁한다.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유언까지 하였습니다. 교도관들이 데리고 가는 데도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오늘이 우리가 이승에서 만나는 마지막 날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말을 잃고 오로지 통곡과 오열로 주체할 수 없는 몸을 가누며 차라리 내가라도 미쳐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접하고 나서 저는 13일 다시 부소장 면담 신청을 했습니다. 부소장 면담 과정에서 제게 '윤여언의 상태가 몹시 심각하다. 앞으로 저런 상태로 계속 방치해 둘 생각이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외태의사가 들에 갔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현재 구치소의 면회과정은 85년 하반기 이후 짝 홀수제를 채택하여 이틀에 한번 면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14, 15, 16일 3일간 면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허나 저는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서울 구치소 민원 실장에게 면회를 허용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도 홀짝수를 가리지 않고 면회를 허용해준 적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민원 실장이 대답하는 말이 '윤여연 그사람 정신 이상자이더군. 교도관들끼리 이야기만 해도 간첩이 나탈랐다고 소리치더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민원 실장이란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자기는 원리원칙을 고수하겠다고며 꿈까지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현실과 환상속에서 헤메이는 남편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알고자 면회를 요구했는데 기절당하고 만 것입니다. 우연찮게 집으로 연락해보니 선고 입자가 원태 정했던 23일로부터 6일이 앞당겨진 17일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면회못한 3, 4일간 소내에서 그만큼 심하게 발작을 하였다는 것이며 또한 용인병원 정신 신경과 의사의 진료 결과도 정신 분열증으로 진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일 1시 30분까지 담당 김씨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남자를 당긴 이유를 전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김사는 김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판사에게 찾아가 의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선고 공판에서 정연우 판사 가 '건강이 압중하는데 어쩌냐?' 라고 질문을 하자 윤여연은 '정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판사는 '사건이 경미하여 1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나 건강이 좋지 않거 때문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라고 선고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출소를 대비하여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중 보인과장이 구내방송을 통해 윤여연의 가족은 보안과로 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면담 중 보인과장은 '오늘 이처럼 선고 날짜까지 변경시켜 출소하게 둔것은 구치소의 숨은 공로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구치소 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역시, 짐작대로다' 라고 하며 '저희 구치소 측은 매우 신경을 써서 잘 봐 주었다.' 라고 회유했으며 '우려 구치소 측이 무엇인가 썰러서 면담을 요청한 것이 아니다.' 는 등의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것에 대비하여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날밤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몹시 불안해 하면서도 오랜만에 기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정신이상자!!!**

이 무슨 청천 벼락입니까? 그처럼 의지력이 강하고 의연하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정신이상자라는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다니!!!

이런 사실이 꿈이길 바랍니다. 아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꿈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 바로 앞에 놓여진 현실입니다. 저의 남편이 정신이상자가 되어 영혼과 육신이 죽어 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차라리 신체적인 불구가 되었다면



더 낡았을 걸 하고 못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석방!

이 얼마나 가슴설레이고 얼마나 소망했던 업입니까?

그러나 저에게 이 많은 기쁨보다 슬픔을 아니 슬픔보나 치끄는 분노를 용솨음치  
게 합니다. 차라리 건강한 몸이라면 감옥 안과 밖이 다름게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  
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남편 윤여연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또 다른 희생제단에 바쳐져 정신이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부끄부끄  
끌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로지 저의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아 왔습니다. 두 살된 사내 아이와 세살된  
여자아이를 업고 걸리면서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대로 거꾸러져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다시는 이러한 고문, 폭행, 용곡조작행위가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어 투옥된 많은 양심수들이 하루 빨리 석방되고 이 땅의 민주화  
가 활짝 피는 그날의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리며 지도 그날까지 결코 좌절되지 않고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미약한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투쟁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87년 2월 24

윤여연의 최 최 경 자.



판 원 인 서

판 원 인 : 최경자.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신길동 1가 11-1

저는 윤어언의 아내입니다.

저의 남편 윤어언은 1986년 11월 3일 밤 10시경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어 11월 4일 남영동 지안본부로 이송되어 조사 중 11월 6일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약 10여일간 조사를 받고 11월 14일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담당검사: 서울지검 공안 2부 508 안왕선) 그러나 이날 구치소로 수감되는 과정에서 명적주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신명식씨와 함께 이유없이 몇차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윤어언은 12월 8일 이유없는 구타를 항의하는 구호를 외쳤고 20일간의 금치 처벌을 받아 포승 수감한채 징비방 생활을 하였습니다. 소내 사정을 전혀 알수 없는 저로서는 몇차례 면회 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였으며 구치소내 측에서의 조사 기간이니 기다려 보라는 전달만 받았읍니다. 겨우 12월 15일에야 박성빈 변호사의 접견을 통해서 윤어언이 당했던 폭행정도와 건강 상태를 들을 수 있었읍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월 8일 : 명적과정 중 구타사건에 대해 구치소장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루어 지지 않자 오후 양심수들과 함께 명적과정시 폭행에 대한 항의 구호를 외쳤다. 이때 고도관들이 사방네까지 들어와 윤어언을 구타하면서 팔다리를 엮고 보안 2개 사무소 앞까지 끌고와 수감 포승한채 보안과 지하실에 끌고 가 구타하였읍니다.

12월 9일 : 포승 수감한 채 하루를 보내고 점심때쯤 다른 보호실로 옮기며 고도관들로부터 계속 욕설을 받자 '왜 욕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 머리 채를 잡고 마구 구타하였다. 다른 학생들과 분리시킨 이후 또다시 무릎을 꿇게하여 거부하였더니 머리를 잡고 수차례 구타하였다. 당시 24시간 내내 포승 수감 당하였으며 식사시간 만이라도 물이 달리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하였으며 진료를 요구하였다가 또다시 폭행당하였다.



12월 11일 : 오후 1시경 옆에 있던 학생들이 노박을 부르자 이름 듣고 교도관들이 들어 오면서 폭언을 해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 2명이 달려들어 머리를 잡고 가슴 등 무릎등 전신을 100여대 이상 구타하였다.

12월 12일 : 오후 3시경 보안 1개 징벌방으로 끌고 가며 욕설을 하자 윤여언이 '와 욕을 마느냐?'고 항의, 항의하였다고 무릎을 꿇으라고 하자 거부, 관규를 지키겠다고 맹세하라고 하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교도관 3인으로 부터 3-4시간 머리와 가슴등 무차별 구타 당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과정 이후 머리가 몹시 아프다고 하며 머리카락이 4분의 1 가량 빠졌으며 무릎에 멍이 들었으며 가슴이 몹시 찢기고 전신이 쭈시뻐 하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윤여언은 또다른 폭행을 가할까 두려워 진료신청조차 하지 못했으며 유아 무야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해 윤여언은 위압적인 징벌방에서 금지되어 있는 동안 받았던 가혹행위로 심한 사기 저하와 정신적 불안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23일 4사에서 5사로 옮기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니 29일 공판에서는 현격하게 나타났습니다.

29일 공판 당시 고발하던 간첩운운하던 진술 내용 이렇든지 진술 내용의 횡설 수설과 반복은 정신적 불안과 초초등이 다소 표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후 지금까지의 면회과정에서 저는 윤여언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반복해서 표출할 정도로 심각하게 불안 초초 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면회 과정에서 대화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1월 27일 : 방을 5사로 옮겼다. 방이 형편 없이 좋지 않다.

1월 31일 : 주변에 간첩이 뒷따르고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매사에 신경써야 함 고민 현상 엿보임.

2월 3일 : 내 주변에는 무엇인가 새로운 음모가 시작되고 있다. 내가 만약 출소를 한다면 저러도 누군가의 음모에 의해서 나는 재수감 될 것이다. 구치소 내에도 이런 경우를 당한 사람이 있다.

2월 5일 : 너같은 인간이 뭘 안다고 날뛰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한 인간이고 싶다. 우유 배달을 하는 한 인간이고 싶다. 조심해라. 주변이 수상하다.



2월 7일 : 나는 왜 이리 불안한지 모르겠다. 두렵다. 공포 분위기다. 누군가 나의 신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치인 최경직에게도 가해질지 모르니 주변을 조심해라.

2월 11일 : 소내에 간첩이 있다. 그들은 나에게 대한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는 나의 어린시절, 국민학교 시절, 아버지, 저, 모든 사람들에 대해 모두 파악하고 있으며 나를 죽이겠다고 시시각각으로 협박하고 있다. 이곳에서 죽이지 못하면 출소한 이후에도 죽이겠다고 한다. 불안해서 식사를 할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다. 그들은 꼭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나는 철저한 빈공주의자이며 민족주의자이다. 인데 2,30여명이 나에게 접근하며 협박한다. 오늘 저녁에 목을 조일지도 모른다. 죽음이 두렵다. 내가 왜 이렇게 그들에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참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잠자는 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소내 특수요원 2,30여명이 구치소 측과 짜고 교도관 양심수들까지 한패거리가 되어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나는 그들을 간첩이라고 고소했다.

'나의 신변 안전 보장을 해다오!' '나를 댜방으로 옮겨달라.' 담당경사와 만나게 해달라. 그러기 전에는 난 단식을 풀수 없다.

난 참대 바깥하게 자살하지 않겠다. 그들은 타살시켜 놓고 자살인것 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있다. 나는 극히 정상이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원한은 꼭 갚겠다.

2월 13 일: 오늘 구치소 측에서 나를 물고문으로 죽일려고 했다. 목욕을 하러 가지고 아길래 마탕가 손에 물을 담가보았더니 너무 너무 뜨거운 물이었다. 그 뜨거운 물로 나를 사형수들과 함께 목욕을 시킬려고 했다. 그리고 그 사형수들로 하여금 나를 목놓러 죽일려고 한다. 나를 죽일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식다. 두렵다.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곤 정영달씨 뿐이다. 1자로 옮겨달라.

나는 저녁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 또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오늘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다. 다시는 못 만날 것 같다.

이때, 교도관 3-4명이 데리러 오자 나 어찌면 또 맥을 댄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 했다고. 그후 너무 기가 막혀 참았던 울음이 폭발져 울었더니 "자네  
신변에 무슨 이상이 생겼지"라며 계속해서 아주 불안하게 억척처럼 물어  
본다.

남편때문에 우는지 조차도 모르고 말이다. 또한 남편은 앞으로는 나 혼자  
모든것을 감당하겠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 등 도저히 알 수 없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그의 초롱하고 예민했던 눈빛은 이미 없어지고 얼건 두  
눈동자만 깜박이고 초췌하고 지저분한 모습, 더러운 정갑과 얼마동안 감  
지 않은듯한 머리카락이 단없이 측은하고 애통하게 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에 구치소측은 10일 서울구치소 부소장과 의 면담을 통해 현재  
윤연이는 정신상태가 불안정하고 과민현상이기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투  
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며 11일에 다시 부소장은 담당의사 진단을 받  
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만큼 증세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것이 아닙  
니까. 저는 이같은 남편소식에 겁하여 조속히 남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인간적인 인정된 치료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범미전에 질병을  
조속히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적십자 정신에 의하면 더욱 그러하고) 더군 다  
나 정신질환은 조속하고도 장기적인 치료를 받지못하면 영영 되돌이킬 수  
없다는 결과에 이르고 만다는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의 남편이 더이상 방치해두면 안된다고 생각하며 특히 더  
이상 심각한 환자가 되지 않도록 초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지연인이 하루  
빨리 될 수 있도록 재판부의 각별한 선처를 비라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민주회로 향한 남편의 이념은 소중한고 그런 이유로 당하는 고  
난또한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20개월과 30개월 남짓한 두 아  
이의 어머니로서 저의 남편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어나 이 모든것을 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시련이라 생각합니다. 남편의 질병이 더이상 악  
화되기 전에 조속한 치료의 석방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1987.2.16

최경자



# 고 발 장

고 발 인 : 최 경자

본 직 : 진남

주 소 : 서울특별시

주민등록번호 :

피 고 발 인 : 황용하 (시대문구치소 보안 1계  
감주임), 유병렬 (시대문구치소  
장), 외 성명미상 교도관 3인.

저는 (진민청련사무국장이었던) 윤여인의 처  
입니다.

저의 남편 윤여인은 1985년 가을 민청련 사건으  
로 1여년간 수배당해오다가 1986년 11월 3일  
밤 10시경 남부경찰서로 연행되어 11월 4일  
남영동 치안본부로 이송, 조사 중 11월 6일 집  
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약 10여  
일간 조사를 받고 11월 14일 김철로 송치되었  
습니다. (담당검사 서울지검 공안 2부 508 안왕  
선)

11월 14일 구치소로 이감되는 과정에서 시작  
된 교도관들에 의한 폭행 및 정밀, 이에 항의한  
단식등으로 남편은 심한 편집증등 정신이상 증  
세를 보이게 되었고 결국 신고 공판까지도 앞당  
겨 석방은 되었으나 현재는 한양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입원중이며 담당의사의 견해로는 3개월  
입원치료와 3개월의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며 치료 후에도 민성화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으로서는 석방의 기쁨보다 침전벽력  
같은 이런 사태에 즈음하여 이러한 가혹한 폭력  
행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저희 남편과 같  
은 경우가 앞으로도 속출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이의 즉각 중단과 가해자 엄벌 및 응분의 치료  
및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고발장  
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여인이 시대문구치소로 송치되어 구  
치소에서 받았던 가혹행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아래 기록중 시대문구치소 내에서 받은 가혹행  
위 기록은 윤여인의 급치기간 (12.8-12.24) 중  
인 12월 15일 <sup>밤</sup> 10시경 박성민 변호사와 면담도  
중 폭로된 사실이며 이후 편집증세를 기록한 대  
응은 시대문구치소 수감당시 저와의 면회도중 알  
았던 대화내용을 간주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 고 발 내 용

11월 14일 : 하오 6시 시대문구치소로 송치되  
는 명적과정에서 집시법과 국가안보법 위반혐의  
로 구속된자들을 열방으로 나오라고 하고는 구

속사유를 기록하라고하여 기록중 옆에서 국가보  
안법 위반혐의 구속 수감중인 심명식씨가 집단  
구타당하고 있어서 '왜 그러느냐?'고 물으며  
그것으로 갔더니 같은 늑어라고 하며 교도관들  
로부터 머리를 잡고 흔들리는 수모를 당하는  
등 구타당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식사시간 동안  
에도 3분진, 1분진, 10초진 등으로 제한당하  
였으며 봉시대 제조자들로 하여금 욕설을 퍼붓  
게 하였습니다.

11월 15일 : 아침집집 시간에 교도관들로부터  
팔자에 마라 직급을 받고난 후 구치소장 면담을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었습니다.

11월 16일 : 다시 구치소장 면담을 집필로 신  
청하려 했으나 거부당하였습니다.

11월 17일 : 사방에 있는 양심수들이 '85년  
하반기 소내에서 자행된 폭행을 항의하는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 명적과정과 그  
이후 절차에서 받았던 폭행에 항의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11월 20일 : 오전 관주임이 저를 호출해 내  
어 단식을 그만두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다  
고 협박하였으나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였  
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  
오니 단식중이던 다른 양심수들이 식사를 하고있  
어서 단식을 풀었습니다.

12월 8일 : 단식을 푼 후 20일동안 계속 행  
령법에 따른 구치소장 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루  
워지지 않아 저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하오 6시  
지의 명적과정서 폭행사실과 14일 이전 소내에  
자행되어 있던 폭행을 항의하며 약 10여분간 구  
호를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10여명의 교  
도관들이 사방에까지 들어와 저를 구타하면서  
관다리를 입고 보안 2계 사무소 앞까지 와서는  
수갑을 채우고 운문을 뚫고뚫이 보안과 지하실  
로 끌고갔습니다. 기기에는 항의권개로 이미 8  
명의 학생 양심수들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12월 9일 : 포승 수감된 채 하루를 보내고 집  
집배수 다른 정밀명으로 옮기며 계속 교도관 **(황용하)**  
로부터 욕설을 받아 제가 '교도관님 욕을 하  
십니까?' 라고 말하니 교도관이 머리를 잡고  
구타를 하였습니다. 당시 정밀명에는 이종환, 조  
유식, 이근희등 여러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앉  
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목격할 수 있었습  
니다. 조금 후 이들 학생들을 다른 방으로 옮기  
게 하고는 따로 혼자만을 무릎을 꿇게하여 거부  
하였더니 머리를 잡고 수회 구타하였습니다. 그  
리고는 다른 양심수들과 함께 각각 제 2보호실



로 변경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빈회 못한 3,4 일간 남편의 소내에서 얼마나 짐하게 발작을 하였는지 단숨에 짐작할 수 있었으며 신고일자 변경에는 용인병원 정신신경과 의사의 진료결과 심신분열증으로 진단이 큰 적용을 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일 1시 30분까지 담당집사가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관날짜를 당긴 이유를 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담당집사는 집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조속히 가족 품으로 돌아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며 본인이 직접 의사에게 찾아가 의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2시 신고 공판에서 정인욱 변호사가 '진감이 양종다는데 어머니?' 라고 질문을 하자 윤여연은 '정상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판사는 '사건이 경미하여 16개월의 징역을 선고해야 하나 진감이 좋지 않거 때문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라는 선고를 했습니다.

제가 남편의 출소를 대비하여 구치소에서 기다리던 중 보안과장은 구내방송을 통해 윤여연의 가족은 보안과로 외달라' 고 하였습니다. 민담중 보안과장은 '오늘 이차림 신고 날짜까지 변경시켜 출소하게 해줄것은 구치소의 몫은 공로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바로 제가 구치소측의 가혹행위에 대해서 지적했더니 '역시' 짐작대로다' 고 하며 '지회 구치소측은 매우 신경을 써서 잘 봐 주었다' 라고 회유하고는 '우리 구치소측이 무엇인가 썰러지 면담을 요청한것이 아니다' 는 등의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질 것에 대비하여 압박을 가 하였습니다.

그날밤 잠으로 돌아온 남편은 몹시 불안해 하던지도 오래만에 겨우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한양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정신이상자!!!

이 무슨 형편바라입니까? 그처럼 의지력이 강하고 의연하던 남편이 어느날 갑자기 정신이상자 라는 제인의 주목을 받게 되다니!!!

이런 사실이 꿈이어야 합니다. 아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 바로 앞에 놓이신 현실입니다. 지의 남편이 정신이상자가 되어 영혼과 육신이 죽어가고 있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자라리 실재적인 불구가 되었다면 더 낫았을걸 하고 못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식방!

이 얼마나 기습적이었고 얼마나 소망했던 일입니까?

그러나 지에게 이말은 기쁨보다 슬픔을 아니 슬픔보다 치통은 분노를 용솟음치게 합니다. 긴강한 몸이라면 감옥안과 밖이 다를게 없는것이 오

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의 남편 윤여연은 고문과 가혹행위의 또다른 희생제단에 바쳐지 정신이상자가 되었기 때문에 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것입니다.

지는 오로지 지의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아 있습니다. 두살된 사내아이와 새살된 여자아이를 업고 걸으면서 이 시련을 감당해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는 이대로 기꾸러지 비릴 수가 없이 지 다시 정신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이땅에 다시는 이러한 고문, 폭행, 용공조작행위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는 고문에 의해서 조작되어 투옥된 많은 양심수들이 하루빨리 석방되고 이 땅의 민주화가 환짝되는 그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염원하며 지도 그날까지 결코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깨닫게 싸울것입니다. 미약한 지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함께 힘을 합하여 투쟁해 주실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987년 2월 24일

윤여연의치 최 경 자



진 단 서

가정번호 1225361-9

성명 윤여연

주민등록번호 1225361-9

1. 병기명	1년
2. 병기일	윤여연 [가정번호] 1987년 2월 24일 2321
3. 병기내역	포스트트라우마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with paranoid state) 308.3 및 297.0
4. 병기내역	1987년 1월 18일 18일부터 2월 18일 18일까지 1년 18일
5. 병기내역	의 입원기간과 2월 31일 18일까지 1년 18일
6. 병기내역	가 1987년 1월 18일 18일부터 2월 18일 18일까지 1년 18일
7. 병기내역	기각의 가등기 - 등기할 것임.
8. 병기내역	X

지정인이 진단함

가정번호 1225361-9

성명 윤여연

주민등록번호 1225361-9

진단내역 부속 병명

진단일자 1987년 2월 24일

진단인원 [인명]

H. U. H. Form C 본서에 포함된 서신이 필요면 부도포함 (190mm x 268mm)



## 악몽의 40일, 그 피의 기억

윤 여 연

(80년 총학생회장·전 민청련 사무국장)

### 한국은 고문부문의 노벨상감(?)

고문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행위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공포와 좌절을 맛보게 함으로써 행위를 포기하게 만들 목적이다. 정치범에게 행하는 고문은 대체로 후자의 목적을 위하여 자행되어진다. 때문에 고문을 경험한 이들 중 일부는 악화되기도 하지만, 되려 인간성 파괴에 대한 중요메문에 수많은 사람들이(주변에서 그것을 보고 분노하여 동조함으로써) 더욱 격렬하게 투쟁해가고 있는 것을 본다. 나는 이러한 고문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서 나가면 너희들을 가장 치참한 모습으로 죽여버리겠다"고 생각했으며 지금도 다만 이성에 의하여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지만 감정상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 고문을 지시한 자만큼은 치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역사분석의 다양한 방식중 한 방식은, 가진자들이 갖지 못한 이들의 저항을 좌절시키고 그들의 기독교를 지키기 위하여 자행한 고문·투옥·학살의 역사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특히 분단상황하에서 외세에 의하여 규정되는 남한 사회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권 침해의 산실이며 인간의 존엄성 파괴정으로서의 이름을 날리고 있고 그 방면의 노벨상감(?)이라는 것은 세계가 동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서형제도와 무기수 및 수백명의 정치범이 있는 나라, 각 곳의 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 구원을 위한 사회 민주회와 조국통일을 외치는 이들을 고문·투옥·폭력·살인하는 나라, 역행의 현장인 경찰서·인기부·보안사·구치소·교도소·검찰청·구청·노동부등이 활개치는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난 80년 고문을 받으면서 육체적 천개보다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패배하여 절망적인 상태에서 굴복하였는데 이후 인간적 좌절을 극복하기까지는 오랜 노력이 필요했다. 고문에서의 굴복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상실케 했으며, 다만 부끄럽고 두렵기만 하였다. 86년 수사기간에는 죽음을 각오한 의지로 별다른 고문 없이 넘길 수 있었는데(이는 노련한 수사관들이 잘못 다루다 죽을 수도 있었겠다는 강한 의지를 간파했기 때문이라 생각됨), 수사가 끝난후 개인적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 모든 이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악몽같았던 80년 80일간의(합동수사본부 수사기간 40일 포함) 동인의 기록을 통하여 주체적 인간이 고자 했던 한 인간의 인간성이 어떻게 파괴되어 가는가? 그리고 그후 극복을 위해 얼마나 고통스럽게 보냈는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 감히 상상도 못했던 고문

장기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하는 민중의 힘에 의하여 권력내부의 갈등으로 박정희가 궁정동에서 죽고난 후, 외세는 기독교를 지키기 위하여 군부를 전면에 내세워 힘의 공백을 최소화시키려 기도했지만, 민중들의 끊임 없는 투쟁은 해를 넘기며 전국에서 들불처럼 터올랐다. 1974년 송실대에 입학하여 그해 12월 유신반대 대모를 주동하고, 이후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분노·고민하며 살아오다가 80년의 역사적 전환기에 시대적 소명감을 온 몸으로 감지하면서 송실대 학생회장에 출마·당선되었다. 나는 학생대표로서 학생운동의 선도적 민주화외지와 학생대중의 요구를 수렴하여 재임 1개월이 동안 수많은 학생시위와 집회 등에 참석·주도 하였고 5월 15일 서울역 시위 등을 주도하였다. 5월 17일 이대에서 열린 전국 학생회장단회의에 참석했다가 (사회를 보았던 것도 곤욕의 한 요인이 됨) 총검으로 무장한 계엄군의 진입 소식을 듣고 탈출하여 도피중 광주항쟁의 사실을 유포하다가 남대문서에 체포되었다. 나는 경찰에 잡혔을 때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남대문·용산·노량진 경찰서로 차례로 이치되던지도 별다른 두려움없이 경찰들을 대할 수 있었고 감히 고문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뺨을 서너대 맞았을 뿐 나의 진술을 토대로 하는 것외에는 별다른 보강수사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기에 나는 노량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당신 김대중한테 5백만원 받았지" 라는 경찰의 심문에 "5백만원이 뭐요? 수백억원 받았다고 하지"라는 농담까지 할 여유가 있었다.

사실 나는 그때까지 동교동·상도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으며 아는 정치인도 없었기 때문에 "동교동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고 경찰도 "알았다"고 해서 조사가 끝난 줄 알았다. 때문에 반성문을 쓰려고 하기에 '학생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전두환을 사형시키라'고 썼다. (이후 이것 때문에 곤욕을 당했음)

## 지을 수 없는 고문에의 굴복

그런데 그날 점심에 짬 수사관이 와서 수갑을 채우고 "가자"고 하면서 승용차에 태우더니(양 옆에 수사관이 있고 고개를 꺾이우고서) 어딘가에 내려놓았다. (들어가는 데 보니 붉은 건물이 보이고 군인이 검문하고 있었다. 이때 나는 광주항쟁 소식과 학내에 진주한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 소식을 듣고 있었기에 군부대인줄 알았고 "이젠 죽었구나"고 생각했다) 차에서 내려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20~30여명의 사람들이 "저 새끼 누구야", "대모한 새끼 죽이", "저 새끼 뻔생이 아니야?" 등등의 욕설을 퍼부었고 주머니에서 꺼내어진 문제의 반성문(새출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주머니에 넣었던 모임임)을 보자 이후의 구타와 욕설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다. 점심후 초추검이 된 나를 데리고 벽에 연결된 문을 열고 들어가자 복도가 있었고 이기저기시 신음소리가 들려왔으며 현병복의 군인이 모초를 시고 있었다. 복도에 면한 문 중 하나를 열고 들어가자 상당히 큰 방(그동안 내기 살았던 방 중 가장 큰 방이었음)에 책상·의자 각 하나씩과 매트리스, 반대편 벽에 빈소창민한 조그만 창문이 있는 단조로운 방이었다. 데려온 수사관이 "인사나 하자"면서 2시간여 동안 기합과 구타를 하고 나가자, 기다렸다는 듯이 현병보초(나중 들어보니 청외대 경호실 33헌병대 소속이며 키 176cm이상, 무술 3단 이상의 신체건강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 함. 이들이 12·12에 국방부 점거와 정승화체포의 핵심부대였음)가 들어와 부동자세를 시키고(현병은 내몸집보다 한배반쯤 되어 보였음) 청외대목침이라고 하면서 양손날을 세워 목양축을 내리치는데 60여대쯤 세다가 쓰러지자, 다시 일으켜 세워 "왜 대모했느냐"면서 온몸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리다가 나갔다. 그러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3명의



수사관이 들어와서 양손에 수갑을 채우고 다리를 썩어내고 철봉대를 끼워서 책상위에 걸쳐놓은 소위 통닭 구이 고문을 시작했고 나의 다리는 하늘로, 머리는 땅으로 향하여 피가 미리로 물러서 고통스럽고 손목이 굽어지는 것처럼 이었다.

수사관들은 발목을 잡고 흔들면서(흔들 때마다 손목이 끊어질 것 같았음) 때로는 쇠파이프로 발바닥을 때리면서 단 한마디 "얼마 받았느냐"고 묻는 것이었다.(이때 처음으로 김대중씨와의 관련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실도 없었고, 또 고문에는 굴복할 수 없다는 오기도 있었기 때문에(사실 그 정도의 고문은 절단일 했다), 신음을 지르는 것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으며, 수사관들은 저녁내내 고문을 히다가 아침식사가 오자 니갔다. 나는 고문당할 것이 억울하기도해서 단식하려고 식사를 그대로 내놓자 헌병이 들어와서 "네맘대로 호습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또 구타를 하고 나갔고, 이후 90°각도로 의자에 앉았으라는 것을 하루종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시달리고난 뒤끝이라 깜짝 졸았는데(달래도 되라는 심정이었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음), 이 때문에 헌병들에게 또 안 죽을 만큼 구타를 당했다. 이렇게해서 합동수사본부에서의(이중에 확인해보니 80년 개업령이 실편되면서 군인, 경찰, 경찰로 편성한 수사단으로 지금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뒷편에 있는 넓은 풀은 바들바들이었음) 40일 생활이 시작되었다. 발목을 뒤로 묶어 2층에 매다는 고문등을 했지만 주된 고문은 통닭구이와 젖은 수건을 얼굴에 대고 물을 붓는 불고문이었고, 발바닥은 밧아서 피가 터졌다. 정말 이때의 심정은 하루하루(물론 시간개념은 식사시간으로만 확인됨)의 고통과 다음날 다가올 사태를 예견할 수 없는 불안으로 "정말 이놈의 세상 지전이라도 나서 멸망했으면, 전쟁이라도 나서 이 고통을 끝장내었으면"하는 생각과 고통에서 벗어나기위해 차라리 이는 정치인이 몇명이라도 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

### 어치구니 없는 질문 '얼마 받았느냐'

드디어 투쟁의 마지막날이 왔다.(합동수사본부에 온지 4일째쯤의 날로 수사관들의 심리전 즉, "다른 학생회장은 다 받았다고 했다" "내가 여기서 안받았다고 하면 더무서운 서빙고나 동빙고로 보내겠다" "차라리 여기서 자인하고 밧장에서 부인해라"등의 말로 정신적으로 이미 무너져 있는 상태였음) 이날 들어온 수사관은 술이나 약을 먹었는지 비정상적으로 얼굴이 붉었으며 흥분된 상태로 보였다. 나는 계속 잠을 한숨도 지지 못했지만 긴장감으로 잠은 날아나 있었고 다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히 맥이 빠져있는 상태였다. 수사관은 이날 색다른 고문을 시작했는데 옷을 벗기고 네모난 직육 몇개를 정만지와 정강이 사이에 넣어 굽어 앉히게 하고 밧줄로 양다리를 동어맨 채 양 팔을 어깨뒤로 돌려서 뒤로 다리와 팔을 묶어놓고 스팀에 고정시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뒤 나갔다. 몇분이 지나지않아 피가 통하지 않은 허벅지가 부풀어 오르는 것이 보였고, 수사관이 "너는 평생 명신으로 살것이다"라고 저질인 말만이 귓가를 앓돌면서 나를 약하게 만들었다.

나는 부풀어 오르는 허벅지를 보면서 여러 생각들을 떠올리며 옆에 있는 스팀에 머리를 처박으러 그쪽으로 움직여 갔다.(나는 고문중 몇번이나 죽으려했고, 혀젓가락을 입에 물고 없어지는 방법등을 생각했지만, 죽음을 받아들일 용기도 적었고 죽음 자체가 언제 되어질 것 같은 생각으로 자살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이때 수사관이 들어와 "이제 다른곳으로 보내든지, 오늘은 결말짓자"고 하면서 쇠파이프로 부풀어오른 허벅지를 때리는데 피가 터져 흘렀다. 피를 보자 더욱 공포스러워졌고, "너희 형수를 데려다 밧가밧거 너하고 데질시켜줄까"라는 수사관의 말이 정말 그럴것 같아 생각되어, "김대중씨에게서 돈을 받았다"고 굴복하였다.(비록 20만 정도의 호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지만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을 김대중씨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후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도하는대로 불충분한 부분을 진술하였고, 그날 3명의 수사관들이 다 들어와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통닭을 사다가 주었지만, 모든 것이 부끄럽고 그냥 죽고만



싶었다. 한민 굴복하자 마음이 한없이 무너져 있고, 하루빨리 이곳을 벗어나서 밭정에 나가 진실을 밝힐 것만을 생각했다.

### 마침내 굴복—쏟아지는 하탈감, 그리고 무력감

이후에는 고문은 없었지만 날마다 헌병들에게 기합과 구타를 당했다. (놈들은 헌병들과 인간적 교분이 생길까봐 1주일에 한번씩 교대를 시켰고 헌병들도 정보원 노릇을 하려고 답배를 주면서 유도심문을 힘) 몇차례 위기가 있긴 했지만 점점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요령이 생겼는데, 어느날 갑자기 처음본 수사관이 와서 끊어 앉히고 구둑발로 무릎을 짓이기면서 “화엄명을 얼마나 만들었느냐”고 대답하라는 것이었다. 십여분 동안 그렇게 짓이기다 나를 지하실로 데리가 하루종일 통닭구이고문, 옥수감을 짝 조이고 바트는 고문(그때 손목뼈가 으스러졌는지 지금도 손목에 힘이 없음)등을 했다면 영문을 몰리하자, XX대 학생회장이 실토했다고 하기에 “아차 그것이구나” 생각하고 사실을 진술했다. 그것은 광주항쟁시 보도된 유언비어가 사실이라는 것을 광주에서 올라온 친구에게 듣고 죽은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아무것도 못했다는 무력감으로, XX대 학생회장을 만났을때 “광주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불을 붙였으면 책임을 지자. 10명씩 결사대를 조직하고 화엄명으로 무장하여 경찰서를 폭파하자”고 했는데 XX대 회장이 자수하여 도피생활중의 생활을 진술하면서 위 내용을 말했었던 모양이었다.

이 사건은 말을 조심하는게 얼마나 필요한가, 꼭 실천할 것이 아니라면, 꼭 필요한 말이 아니라면 꼭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 참동수처본부에 온지 30여일이 지난뒤 수사관들이 왜 허위진술을 했느냐고 질책하는 소리를 듣고(이때는 김대중 내란 관련사건의 도표가 찢어진 상태였던 것 같음), 이인해 하면서 허위진술 부분을 삭제하고 노랑천 시를 거쳐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남대문시에 집혀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까지 80일이 걸렸다). 그때는 게엄령이었기에 수도군단 사령부를 기쳤는데 군복만 보면 사지가 오그라드는 공포를 경험했다. 이후 형기를 면료하고 출감하여 여러 동료들을 보면서 뚝뚝하게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없는 인간성 파괴를 경험했다. 정말 모든게 부끄럽고 치욕스럽기만 했다. 어디론가 도망가고픈 생각뿐이었다. 다른한편 나를 그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증오가 끓어올랐고 이러한 인간성을 파괴하는 자들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고 싶었다.

이후 농사꾼, 보험회사, 외무사원, 출판사 편집사원, 배달꾼, 인쇄소 직원 등으로 살아 오면서도 고문과 고문에의 굴복의 기억은 지울수 없었고 사회가 침묵하는 것에 머칠 지경이었다.

### “죽일려면 죽어라, 나는 굴복할 수 없다”

1983년말 복학 대책위 활동과 이후 민주화운동 청년연합 활동을 통해서 공개활동을 시작했고 1985년 9월 김근태의장이 검거 구속되면서 수배되어 1년 2개월여를 도피하면서 활동하다가 1986년 11월 건대사건으로 학생들이 연행된날 저녁에 집에서 남부경찰서 수사관에게 연행 되었다. 나는 연행되어 가면서 “또다시 굴복할 수는 없다,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죽일려면 죽어라”라는 각오를 했다.

남부 경찰서에서 조사중에 구타하기에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죽으리하자 구타에 대한 사과를 하면서 자살할까봐 두려웠는지 친질을 가장하면서 저녁내내 감시를 했다. 다음날 남영동에 갔을 때도(내 치를 포함한



민가힘 가족들이 남영동 앞에서 차를 가로막고 못가게 했는데, 나에게는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나는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틀간 묵비권(민청련 중앙위에서 사전결의)을 행사하는등 당당할 수 있었으며 잠안제 무기등의 고문과 끊임없는 고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견뎌왔지만 건디이 낼 수 있었다.(심리적으로 이곳을 벗어난 후도 상당기간 긴장감이 누적되어 피오줌을 썼음)

이후 용산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던중 진대사건에 관련돼 수감된 대학생들을 선동했다고 고문의 위협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어유가 있었다. 12일후 남영동을 벗어나자 서울에서 이겼다는 승리감과 자신감이 느껴졌으며 80년의 최절을 딛고 그것을 극복해냈다는 승리감으로 충만했다.

### 끊일새 없는 폭력...그러나 더욱 증폭되는 투쟁성

나는 이후 용산경찰서, 구치감, 구치소등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구타와 고문을 당했지만 굴복한 적은 없었다.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에게 3시간이 넘게 구타당했고, 또다른 많은 구타와 그것에 대한 투쟁이 이어졌는데 이것은 개인의 투쟁성을 증폭시켰고 또 수형생활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효험도 있었다. 구치소 수감중 특기할 사항은 정치구호를 외쳤다고 수감을 차고 온몸을 포승으로 꿰뚫. 묶은채 20여일을 개밥을 먹으면서 겨울철 먹방에서 보낸 일이었다. 먹방에 들어가기전 교도관의 기술적 구타에 의하여 언골을 다쳐 기침을 할때마다 가슴이 빠개지도록 아렸고, 최고의 득종이 있다는 찬사(?) 속에 방풍말(비닐)을 칠기당한 상태에서 담요 한장으로 지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수서기간을 견디어낸 개인적 승리가 밑바탕이 되었던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먹방 생활중 고독과 추위를 견디기 위하여 서대문 구치소에서 개봉동(집)까지 거리를 헤이리면서 제자리 뛰기를 하다보면 온몸에 힘이 빠졌고, 더욱 많은 시간동안 나 자신을 정리하면서 소영용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자기비판과 안일과 무질세, 독선에 대한 반성을 했다. 먹방생활중 고통스러웠던 생각은 그동안 민주회운동을 핑계로 아내와 가족에게 주었던 고통이었다. 이내는 도피중 만났을 때 언년생 민주·혁주 두아이를 키우면서(혁주가 태어난지 2~3개월 후부터 도피생활을 했음) 기저귀빨래 때문에 무명지 안쪽 매듭에 혹이 낫다면서 보여준일이 있었는데 이일이 가정 생각나기에, 나중 만회은 아내에게 나가면 반드시 세탁기를 사주겠다고 하여 이대를 울린일이 있었다.

이후 박종철군이 고문중 사망한 사건으로 80년 당시의 고문등을 연상하다가 정신적 강박관념(핀집증)으로 집행유예 석방되어 한양대 병원에서 3개월 치료를 받기도 했다.

### 고문없는 세상을 갈구한다.

보잘것 없는 개인적 경험들을 나열하면서 나의 어려운 경험들이 민족·민주운동 건설과 조국통일운동을 수행하는 후배 여러분들의 투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잠시의 육체적 고통을 견디어 이거 인간성 파괴의 최절을 경험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매운 파오를 빤할 수 있지만, 떨치고 일어서 조국의 지주·민주·통일투쟁의 선봉에 서주기를 일망한다.

또한 해방된 조국에서도 독립투사를 고문하던 자들이 외세와 결탁하여 조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던 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문을 지시한 자들을 처단하고 고문이 지시되어도 고문이 시행될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오직 민중의 의성과 단결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볼때 일제하의 민외세투쟁,



해방이후 반독재투쟁, 조국통일투쟁의 진통을 갖고 있는 숭실 후배들의 민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기대한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외치본다. **충성**

“고문없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살아가자”

“조국통일 하자는데 살인고문 웬말이나”

“고문정권 살인정권 군부독재 타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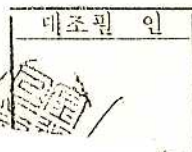
“고문을 추방하여 조국통일 앞당기자!”



# 진 단 서

병 록 민 호 1225361-  
 인 민 호 \_\_\_\_\_

주 면 등 록 민 호 \_\_\_\_\_



1, 환자 의 소	서울 구로구				
2, 성 명	윤 여씨	성 별	( ) 님	생 립 일	1955년 1월 2일
3, 병 명	국제 전병 분류 번호				
<input type="checkbox"/> 입 상 적	위 상 증 느르레느랑애				
<input checked="" type="checkbox"/> 회 중					
4, 발 병 일	87. 1. 17				
5, 치 료 의 견	항 후 위 상 증 느르레느랑애 국제 전병 분류 번호				
6, 비 고	X				

2  
3  
2  
28

위 와 같 이 진 단 함

발 행 일 198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17

한 양 대 학 부 속 병 원

면 허 민 호 5532 의사 성명 김희양 (인)



처리기간  
주 시

~~제출~~ 증명원  
~~이감~~

제출 소재	성명	윤여연		주민등록번호	1
	주소	서울 동작구 1-1			
수령	청호번호	5104	취급	큰고령치안	
	형명	정익	과	간학	
형기	금고	사		교	
항	일자	(노량진경찰서) 1980.8.18	일확정일	7	사유
	항종료일	7	이감	성동구치소 80.12.24	항으로 인한 사용구분

민원사무 처리 규정 제 2조에 의하여 위 사실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6월 16일  
신청인 윤여연 서명  
주민등록번호 1110102 - 1649610  
교도(구치)소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자 김명 (인)

94년 6월 16일  
안양(구치)소장 (인)